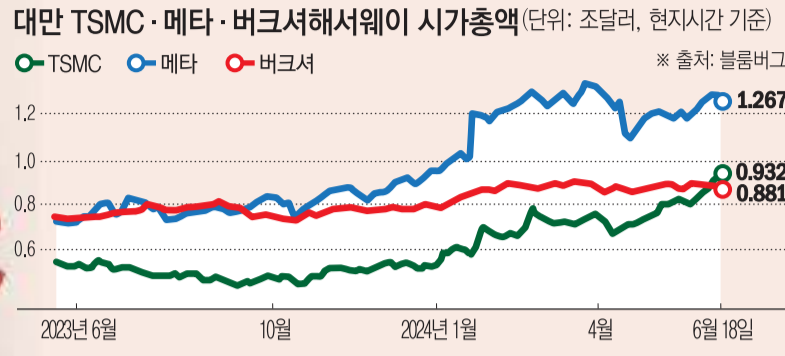


<GOD+NVIDIA>

'갓비디아 후광' TSMC... '시총 1조달러' 카운트다운

월가도 줄줄이 목표주가 상향

엔비디아 반도체 공급 주요 협력사
올들어서만 주가 72% 이상 올라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버크셔 제치고 세계 시총 8위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진입을 눈앞에 뒀다. 월가에서는 TSMC의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TSMC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전 거래일 대비 1.38% 상승한 179.6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시총은 9320억 달러(약 1290조 원)를 기록하게 됐다. 이로써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약 8810억 달러)를 제치

고 시총 기준 세계 8위 기업에 오르게 됐다. 뉴욕증시는 이날 '노예해방 기념일'을 맞아 휴장했다.

TSMC는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의 주요 협력업체다. 사실상 인공지능(AI) 반도체도 TSMC의 협력 없이는 엔비디아 등이 자체 개발한 칩을 양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TSMC도 수혜주로 부각됐다. 이미 엔비디아는 AI 붐에 힘입어 3조 달러에 안착한 상태다.

TSMC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72% 넘게 올랐다. 이에 월가에서는 TSMC가 무난하게 시총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급증하는 AI 관련 수요 확대를 근거로 애널리스트들이 TSMC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3나노미터(1nm=10억분의 1m)와 5나노 칩 제조 가격의 소폭 상승을 예상하며 TSMC 12개월 목표 주가를 1160대달러(약 4만9600원)로 종전보다 19%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과 모건스탠리도 양호한 이익 전망을 배경으로

TSMC 목표주가를 각각 12%, 17% 끌어 올렸다. JP모건체이스도 "2028년에는 TSMC 전체 매출의 35%가 AI에서 나올 것"이라며 목표주가 상향 조정 대열에 합류했다.

월가에서 '시총 1조 달러 클럽' 기업은 의미가 남다르다. 회사의 지배적인 시장 지위, 재무 건전성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모두 인정하는 일종의 '타이틀'로 통하기 때문이다.

현재 '1조 달러 클럽'에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시총 1위에 올라선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아람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등 총 7개사다. 테슬라는 2021년 10월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총도 1조달러를 넘어섰으나 이후 주가 부침이 이어지면서 시총이 현재 약 5895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월가 전망대로 TSMC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 1조달러 클럽에 진입하게 된다면 TSMC는 주식시장에서 파운드리 업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 셈이 된다.

한편 TSMC 존재감이 커지면서 2위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12일 발표한 파운드리 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TSMC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61.7%로 전 분기(61.2%)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반면 2위 삼성의 점유율은 11.0%로 0.3%p 떨어졌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상장사 사상 최대배당→가계자산 증가→ 증시 재투자" 韓, 보고 있나... 日 '밸류업 선순환'

"실질 GDP 0.1% 증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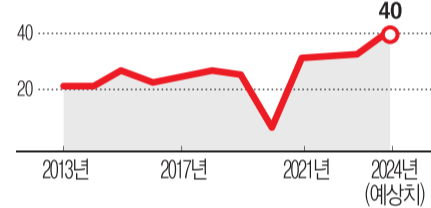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시행한 일본에서 상장사들의 배당 규모가 올해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본증시에서 개인투자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밸류업의 경제 선순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이 일본 상장기업 2200곳을 분석한 결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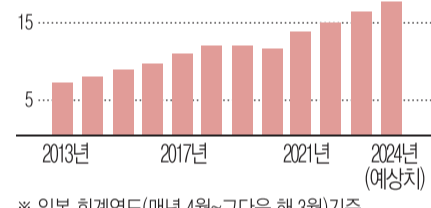
에 해당하는 약 990개사가 내년 3월 마감하는 이번 회계연도에 배당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을 확대하는 상장사 수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배당총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약 18조 엔으로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로 늘어난 배당금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일본 상장사 중 배당기업 비율(단위: %)



배당총액 (단위: 조엔)



* 일본 회계연도(매년 4월-그다음 해 3월) 기준

* 출처: 니혼게이지신문

2022년 말 개인 투자자 수는 148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2만 명 증가했다. 현재 상장사 주식의 약 20%를 개인이 보유하

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세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올해 가계로 돌아가는 배당은 약 3조6000억 엔(약 3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마노 히데오 다이나믹치생명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8조 엔 규모의 배당이 이뤄질 경우 실질 소비는 5000억 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가계 저축을 투자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신(新)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시행하면서 개인투자자가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배당 확대 혜택을 누리는 가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구마노 이코노미스트는 "배당 수익은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보다 소득 향상을 피부로 느끼기 쉽다"며 "고령자를 중심으로 소비를 자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배당을 늘리는 것은 정부와 도쿄증권거래소의 자본효율 개선 요구가 있다. 최근 주요 일본 기업들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쌓아둔 이익잉여금을 주주 환원으로 돌리지 않으면 자본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일본 상장사(금융 제외)의 지난해 자기자본 비율은 42%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인 기업들에 이를 끌어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배당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해 PBR 개선을 꾀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커지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민간주택 '공급 절벽' 우려

각종 원자재값과 인건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기인 2021년을 전후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최근 2~3년 전과 올해를 비교하면 각종 골재와 원자재, 인건비는 최소 10%에서 많게는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공사 기간마저 늘어나 건설 원가는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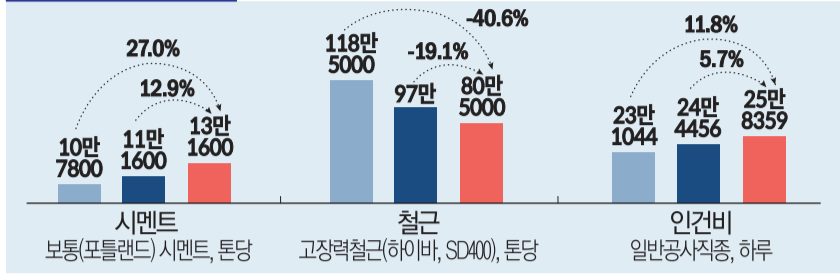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일찌감치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공공공사 진행이 어려운 만큼 공사 조건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 발주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건설협회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에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 사업 중 공사비 3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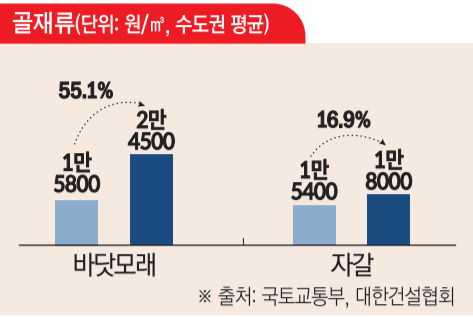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아파트는 예전처럼 36개월 완공은 어렵고 최고 42개월까지 보는 경

주요 건설 원가 변동 (시멘트 및 철근은 6월, 인건비 및 골재류는 상반기 기준)

주요 원자재(단위: 원)



골재류(단위: 원/㎡, 수도권 평균)



서울 용산·강남 리모델링 단지 공사비 인상 요구에 지연 위기 은평 '대조1구역' 공사비 미지급 반년 가까이 공사 중단되기도

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듯 건설비용 상승세가 이어지자, 민간 주택분야는 '공급 절벽'으로 치닫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을 놓고 시공사와 정비조합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서울은 수년 내 공급 '0건'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신청 건수는 지난해 말까지 총 10건이 접수됐다.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현대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이촌 르엘'과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청담삼익아파트) 공사 대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공사가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대건설의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반년 가까이 현장이 멈춰 있다가 최근에야 공사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대우건설은 갈등 끝에 지난해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과 공사비 증액 합의를 이뤘다.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장에서선 공사비 인상 계약도 속속 체결 중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2차 재건축 현장은 7년 전 책정한 3.3㎡당 569만 원에서 최근 1300만 원으로 공사비가 인상됐다. 무려 128% 오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 청

주요 정비사업장 공사비 출상향 지난달 공사비 검증 신청 10건 시공사-조합 공사비 갈등 증폭 "서울 수년내 공급 실종" 전망도

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3.3㎡당 687만 원에서 1137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 역시 오르기만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며 "자재값이 대폭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분양가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공사비 상승 영향으로 국가 SOC사업이 지연되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주택 공급이 늦어지면 국민이 대규모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 SOC사업은 모든 국토 개발, 또는 도시 개발 계획에 맞춰 집행하는데 공사비 상승으로 유찰돼 제때 시설이 갖춰지지 않게 되면 국민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며 "주택의 경우 공급난이 지속하면 그만큼 집값이 더 오르게 되므로 실수요자는 추가 대출금 부담 등 간접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크게 보면, 주택 부족 등으로 사회적 갈등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허지은 기자 hje@

“건설원가 20~30%가 금융비용 稅혜택 등 업계 부담 줄여줘야”

전문가 제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견도

민간영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원가 상승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공부분의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조율이 불가능한 영역의 원자재값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기타 비용 감소 방안으로 금융비용 감축과 세제 혜택 등 보조적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공사비 인상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간 영역뿐 아니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주요 사회간접자본(SOC)마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민간영역뿐 아니라 정부 사업, GTX 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물량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건설업계의 금융부담을 줄여 공사비 인상을 줄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금융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키기 어려워지면서 금리가 12%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건설원가에서 금융비용이 20~30%가량 되기 때문에 줄이기 어려운 원자재값이나 인건비보다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역시 "정부에서 민간 건설업계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급자족하는 공사 원자재가 사실상 없어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자재값 단가 인하는 정부나 민간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며 풀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공사비용 증가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로 건설과정 효율화를 통한 공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서 교수는 "결국 민간 분야에선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한 경비 절감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 상황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새 계약조건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건설사는 과거에 계약을 진행했어도, 공사비 인상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공사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못 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며 "민간 건설현장의 이해관계자, 특히 건설사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에서도 공사비 상승이라는 새 기준을 인정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공사비를 인상해 줄 부분은 인상하고, 시공사는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원가절감 등 지구안을 포함한 인상안을 토대로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지은 기자 hje@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타레이더를 켜세요
Turn on the tRadar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길잡이,
북극성처럼
타레이더가 바른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065%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레이더는 투자판단을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246호 (2023.07.04~2024.07.03)

尹 “3.4조 영일만 횡단도로 ‘속도’… 경북 수소산업 허브로”

경산서 26번째 민생토론회

경주에 3000억 SMR 산단 조성
8000억 동해안 수소벨트 구축
구미산단, 반도체소재 거점으로
경북-전국 ‘2시간 생활권’ 연결
국도 7호선 4차로→6차로 확장
관련 기관 협력해 인프라 박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 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과 울진을 잇는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경북 지역을 청년과 벤처가 모이는 혁신 스타트업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동해안 관광의 신거점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

주에 3000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항을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경북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적정성 검토 중인 영일만 대교 건설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3조3689억 원이 투입되는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20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시작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건설 중이며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9542억 원 규모의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된 이후 2022년 말 예타에 착수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경북도 등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322억 원 규모인 울산-경주 국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및 수립(2025년 말 발표 예정)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차량정체 해소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계획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김동효 기자 sorahosi@

“경북, 창업 주역으로”… 중기부, 인프라 확충·스타트업 성장 지원

포항에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청년 인재 유입될 수 있도록 문화·소통·주거 복합공간 마련

중소벤처기업부가 경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 인프라를 확충,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26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중기부, 기획

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경북을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먼저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청년창업 복합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2022년 경상북도와 경산시를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건축

설계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공사를 개시했다.

또한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공정개발 및 제품 실증 등 벤처·스타트업 제품의 초도 생산을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있다.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돼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가 제조 인큐베이팅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마무리를 진행하고 있다.

완공 이후에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스타트업 약 10개사를 선정해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키고, 2~3년간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지원,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지역 제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지역 벤처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누적 1조 원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0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 원을 출자해 4500억 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또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지방소멸 대응사업’ 펀드 조성시 지자체 출자 가능

행안부, 관련 규정 손질하기로 민자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주재한 26번째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민간 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한 투자가 증진되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정부도 발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찾은 경북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에 호텔과 리조트를 비롯한 숙박시설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관한 출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면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달 4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경북 통합 추진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경북·전남 등 8곳 ‘기회발전특구’ 지정

40.5조 투자… 기업, 세계 혜택

경북·전남·부산 등 8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 신규 투자와 착공 투자 등 총 40조5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 세제와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경북·전남·전북·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을 결정했다.

경상북도는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 평을 지정했다. 전남은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 터미널 및 수소 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만1000평을 지정했다. 전북은 탄소섬유, 동물용의약품, 특장차 등의 기업이 유치된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8만5000평을, 대구는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전기차 부품 등의 기업이 유치된 수성구, 달성군, 북구 등 3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82만7000평을 지정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책무구조도 '코앞'... 은행들, 시스템 구축·리스크 개선 분주

홍콩 ELS·횡령 등 명예 실추 속 내달 3일 책무구조도 시행 앞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조직 신설 윤리경영 등 각종 프로그램 가동

5대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 ※출처: 각사



다들달 3일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당장 적용 대상 첫 타자인 은행의 경우 책무구조도 작성은 물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고객 자산 관리 리스크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직 신설 등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법 시행 6개월 후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 당국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間は 있지만 오히려 타진 대규모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주요 은행과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책무에 대한 설

명, 배분 방법과 대표이사의 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 제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윤리경영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윤리강령 실천서약 △법규준수 자기점검 △금융사고 예방교육 △금융사고 예방대책 자기평가 등이다. 전 임직원 대상 매주 윤리경영 자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마다 임직원 근무윤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자기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점검(상시감사체계)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금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지역그룹 내부통제팀도 신설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무리하고 임직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입각해 임원의 책무를 누락, 중복 없이 도출, 점검하는 방법과 해외 선형사례 분석을 통한 전사적 내부통제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신한은행은 올초 리스크관리그룹 리스크공학부 산하에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를 총괄하는 '고객자산리스크팀'을 신설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고객리스크관리부'를 만들었다. 이 조직들은 고객 개인의 자산을 예금, 펀드, 파생상품, 신탁 등 상품 유형별로 분류해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소비자별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하나금융지주는 해외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나금융은 올

해 초 해외부동산 투자 사전 심의기구인 '해외대체투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해외대체투자건에 대한 투자은행(IB) 전문가들의 사업성 분석 의견과 자문을 구하는 등 투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키로 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현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자제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 건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의를 통해 회수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2024년 금융사고 제로 은행'을 위한 서포터즈 활동에 들어갔다. 사고 제로 서포터즈는 검사 가능 혁신 추진 계획의 하나로 물질 틀 없는 내부통제 시스템 완성을 위해 도입했다. NH농협은행은 리스크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기존 리스크관리부를 리스크총괄부 및 신용리스크관리부로 이원화했다. 전행 리스크관리 총괄은 리스크총괄부가 수행하고 신용포드폴리오 전략 수립 및 관리는 분리·신설된 신용리스크관리부가 전담한다. 김범근 기자 nova@

“책임소재 명확해져 금융사고 예방 인센티브·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책무구조도 관련 전문가 의견 도입 땀 규제·감독 정확성 높아져 조직 문화 손질, 고유 업무 벗어나 객관적 지표로 만들기도 어려워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대규모 금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가가 모호해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본지가 금융 전문가들에게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체계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내부 통제를 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확실해져 규제와 감독의 명확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금융사 임원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태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의 세부적 인식은 책무배분의 논거를 금융기관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확립해 나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에는 금융상품 판매에 회사 간 제휴와 협업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어 분업 형태 등에 따라 위험요인별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꾸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책무구조도 설정이 당장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있다”며 “사장과 같은 제3자를 내세워 처벌을 받게 하는 등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

다. 이어 “꼼수가 없도록 제도 운영을 촘촘히 하고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금융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책무구조도를 잘 시행했을 경우 금융사에 감독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정 교수는 “적절한 당근과 채찍이 잘 작동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채찍이 정교해지는 것”이라면서 “책무구조도가 잘 작동했을 때에 맞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규모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담당 임원만 제재하고 CEO 제재는 피해가는 식으로 면죄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금융 사고의 규모나 성격을 감독 규정에 구체적 규정해야 일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원의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고가 거듭되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조직 문화'를 손질하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 교수는 “은행권의 조직 문화가 중요하지만 이를 감독 기관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객관적 지표가 아니다 보니 원래 취지보다 다르게 이용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감독기관은 건전성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보호 같은 위법 사항에 대해 다루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김재은 기자 dove@

2024 산업단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한국산업단지공단 × KDI 신용보증기금

2024 KICXUP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전국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수요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함께하고 싶은 혁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4.06.21.(금) ~ 2024.07.09.(화) 18:00

모집대상 전국 산업단지 수요기업과 기술 협업을 희망하는 국내외 스타트업* (40개사)
*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하 법인 및 예비창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포함)

지원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kicox.or.kr),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K-스타트업 홈페이지 (k-startup.go.kr) 서식 다운로드 후, 접수링크 (https://tally.so/r/nPEkJe) 신청

지원내용

수요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PoC 지원금 (최대 1.5천만원)	해외 수요기업과의 연계 중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투자유치 및 TIPS 연계 프로그램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산업단지(KICXUP 서울, 광주) 내 사무공간 지원

*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

문의 (주)탑엔젤파트너스 / jinwon@tapaps.com / 02-6247-6858

산단 입주기업

BANDO	CJ ENM	EcoPro Partners	Hankook & Company
HITEJINRO	POLARIS OFFICE	SHINSEGAE E&C	VNTG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KDI 신용보증기금 TAP. TAP ANGEL PARTNERS

野, 노란봉투·양곡법 재상정... 폐기법안 부활법도 꺼냈다

尹 거부한 법안 단독 심사 착수 간호법 등 속전속결 통과 전망 “前 국회 법안 즉시 상정 법제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안건 자료집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창의적이다”, “일사부재의도 모르냐”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

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정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도 상정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폭락하면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득을 안정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쌀 외에 다른 작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은 한우 수급 조절과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 또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간호법(간호법안 제정안)을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19일 임기 만료로 자동으로 폐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정도면 제3세계 법체계가”, “참신한 발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국민의힘, 전력망 인허가 ‘패스트트랙’ 깬다

지자체에 막힐 때 장관 통해 해결 전력망 확충법 ‘특례’ 조항 넣기로 한달 안에 회신 없을 땐 통과 강제

국민의힘이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의 특례 조항을 추가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이르면 21일 발의한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토지 소유주의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제15조는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 지연돼 전력망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산자부 장관은 개발행위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처리해야 한다. 또 인허가권자가 처리 결과를 회신기간(30일) 안에 산자부 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특정 기간이 지난 후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조항도 포함됐다.

송전선로 설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토지 소유주를 위한 특례 조항도 추가됐다. 법률안 제17조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송전선로 설치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토지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매수청구 방법과 매수가액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앞서 21대 국회 당시에도 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 바 있는데, 기존 안보다 보완된 법률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및 전력망 확충기 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앞서 김성원 의원이 5일 발의한 전력망 특별법과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특위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한 31건의 ‘민생공감 531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추경호(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을 방문해 여름철 재난 안전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병화 환경부 차관·김민석 고용부 차관·김완기 특허청장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병화 환경부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31회로 서울대 지질학과를 나와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하며 환경부에서 20여 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환경관료다.

대형마트의 과대포장 제한, 공공 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침 마련,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 등 생활밀착형 환경정책을 이끌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재직 시절 군대 내 환경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관으로 일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이병화 김민석 김완기

대책을 추진하는 등 환경교육에도 앞장서 왔다. 2019년 환경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소속기관 직원 939명의 투표를 통해 선정한 ‘올해의 닦고 싶은 간부공무원’ 중 1명으로 뽑힐 만큼 내부 신망도 두둑하다.

고용부 김민석 차관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지닌 정통 관료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

직에 입문했다. 2005년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노사관계학 석사학위를 받아 노사관계에 특히 전문성이 있는 관료로 꼽힌다. 고용부 직원들 사이에선 업무에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망도 두둑하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산업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산업 및 통상 정책 전문가로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대구 심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과, 미국 조지타운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법학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1999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2010년 산업부 전신인 지식경제부 중 국협력기획과장을 거쳐 2011년 상하이 총영사관 상무관으로 일했다. 특히 산업부에서는 이례적으로 2022년과 2024년 대변인을 두 차례 지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감사원 “공무원이 문건 빼내 터미널 특혜 계약”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 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20일 감사원은 이 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청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21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기부채납한 뒤 무상 운영하던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지분 100%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감사 결과, 청주시가 일반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충청북도 처분을 무시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을 유리한 쪽

으로 조작해 내부문건을 작성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2016년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 터미널에는 복수의 사업자면허를 부여할 수 없으나,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수는 있어 일반입찰이 가능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행안부에 ‘공유재산법 시행령’을 적용해 사업자면허를 갖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행안부로부터 기존 사업자인 A사와 수의계약으로 터미널시설 대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A사와 6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2016년 8월까지 사용해왔는데 이를 2021년 9월까지 5년 더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민 기자 oin@



Produced by **ixi**

우리는 통신회사였다
 스스로 한계 짓지 않고
 일상을 바꿔 나갔다
 그렇게. 어느덧. 3000만.
 이제 더 큰 시작을 하자
 시로 모두가 성장하는
 더 큰 일상
 전에 없던, 디지털 세상을 열자

GROWTH LEADING AX COMPANY



유플러스 AI, ixi로 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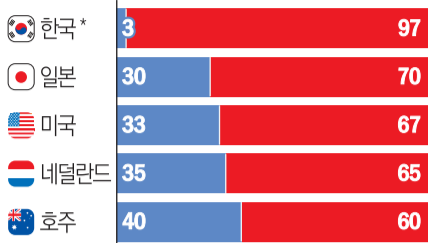
“韓 부동산PF 97%가 빚… 자기자본 40%로 높여야”

KDI '구조개선 보고서'

저자본 구조로 영세 시행사 난립 해외는 자기자본비율 30% 넘어 선진국 수준으로 자본 늘리거나 건설사 등 제3자 보증 폐지해야

주요국 부동산PF 자본구조 (단위: %)

■ 자기자본 ■ 부채 * 출처: 한국개발연구원(KDI)



* 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 재무구조 분석 결과, 타 국가는 과거 자료 토대로 비중 추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우리 경제에 반복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3% 수준인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낮은 자기자본에 높은 보증 의존도 구조로 소위 '한탕'을 노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영세한 시행사가 난립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황순주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

진된 총 10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 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 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도 30~40%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자기자본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

다"며 "보증을 제공하는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보고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에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명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 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와,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일률적인 직접 규제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간접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업 주체가 총사업 가치 대비 최소 15%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

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또는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규제를 도입해 점차 주거용으로 넓혀가자고도 덧붙였다.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리츠는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고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개발이익을 국민이 나눠 가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에서는 시행사가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지분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벌써, 벼 수확해오 절기상 하지를 하루 앞둔 20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의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베기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이 벼를 베고 있다. 뉴스시스

휴진을 50% 넘는 지역 4곳 조사… 후속조치 나온다

정당한 사유 없으면 행정처분 예정 9월까지 의료인력 조정시스템 마련 의협, 범의료계 조직 구성하기로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당시개원의 절반 이상이 휴진한 지역 4곳의 의료기관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휴진이 30% 넘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의 집단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벌어진 18일 개원의 휴진이 30%가 넘는 시군은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54.0%) 등 네 곳이다. 이들 네 곳 모두 정부가 기준선으로 제시한 휴진율 30%를 훌쩍 넘겼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지자체 단위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체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체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체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급 특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각각 꾸려 운영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보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양성·인프라 확충 등에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는 데 의견을 모았다.

건보 재정 투자와 관련, 필수·지역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수가 인

상이 아닌 지불제도 및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고난도, 중증, 응급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편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에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운 만큼 수가 체계 개편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정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범의료계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범대위 구성을 계기로 의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3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창수 전국 의사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맡는다. 전공의 대표로는 누가 참여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올여름 전력피크는 8월 둘째주 예상 원전 21개 가동… 블랙아웃 없을 것”

올여름 최대전력 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이 끝난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전력량은 92.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과 비상 예비 자원을 확보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여름 최대전력 수요를 지난해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인 92.3GW로 예측했다. 다만 무더위로 수도권의 냉방 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 지방에서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력 수요가 97.2GW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기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전력당국은 매년 여름철을 앞두고 미리 예상 최대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능력을 확보해둔다.

전력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한다. 태양광 발전 설비도 지난해보다 2.7GW 늘어 전력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더라도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의 변수는 있다. 전력당국은 이를 대비해 다양한 수급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외국인력 업종별로 중장기 대응… 숙련기능인력 늘린다

비자별 관리로는 변화 대응 어려워 외국인 농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어부는 해수부로 업종별 부처관리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계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은 47만 9000명, 전문인력은 7만 5000명이다.

그러나 현재 전문인력(E1~7) 법무부, 계절근로(E8) 법무부·지자체, 비전문취업(E9)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 법무부·해양수산부 등 비자별·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 또 일부 도입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과도한 송출비용(1인당 최대 5500달러)으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축산업(E-8, E-9)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업(E-8,

E-9, E-10)은 해수부, 제조·건설·서비스업 등(E-9)은 고용부와 관계부처가 맡는 식이다. 부처 업종별 수요 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공공형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인력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전쟁 때 지체 없이 군사원조”... 북·러, 합의 조약문 공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문이 공개됐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양국 관계가 냉전 시대 혈맹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러시아와 전날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전날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협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조약’이라고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쪽 당사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호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에는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방어 목적이지만 서방 강대국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라며 “양국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양국 관계, 군사적 밀착 가속
무역·핵에너지 등 협력 확대
외신 “냉전 시대 조약 부활”
무기 거래 우려 한층 심화**


총 23조로 구성된 조약의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처하게 될 경우 유엔헌장 제51조와 양국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사적 및 그 외의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 침공을 받은 회원국의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 협정을 통해 군사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무역과 투자 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조약 전문에는 핵에너지, 우주 탐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약이 냉전 시대였던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선·소련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로 평가했다. 실제로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유사시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써서 상호 군사 원조에 나선다’는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주요 내용
※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

- 1 제4조에 한쪽이 무력침공 받아 전쟁상태 처하면 유엔헌장 51조 등에 따라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 제공 명시
↳ 1961년 ‘자동군사개입’ 조항과 거의 동일
- 2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
- 3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 강화
- 4 무력침략 위협 조성 시 협상 통로 지체없이 가동
- 5 1961년 조약 당시 명기했던 ‘한반도 통일’ 조항 사라져

※ 출처 : 조선중앙통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공개된 조약 전문에는 핵에너지, 우주 탐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약이 냉전 시대였던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선·소련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부활이나 마찬가지로 평가했다. 실제로 조·소 동맹조약 제1조에는 ‘유사시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을 써서 상호 군사 원조에 나선다’는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번

조약이 다른 점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양국 국내법에 따라’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뿐이다. 과거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 붕괴 이후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폐기됐고, 이후 북한과 러시아는 2000년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제외한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국제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이번 조약으로 양국의 무기거래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지게 됐

다.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이 한때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고 시도했다”며 “그러나 이제 끝났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북핵정기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고 논평했다.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심힘을 벌인 유일한 국가다. 또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위성사진 상에서 두 국가의 무기 이전이 매우 증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변효선 기자 hsbun@



피란 끝에... 새 터전 찾은 ‘벨루가’ 스페인 발렌시아 해양 수족관에서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피란 온 흰돌고래(벨루가)를 더 큰 수조로 옮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 있던 벨루가 두 마리가 전쟁으로 고향 수족관이 폐허가 되자 위험스러운 육로와 비행기를 통해 무사히 스페인의 새 터전으로 옮겨졌다. 발렌시아(스페인)/AFP연합뉴스

중국판 양적완화 ‘만지작’ 인민은행 국채 매입 검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0년 만에 가장 큰 정책 도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투자주이 금융포럼’에서 “인민은행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매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해당 발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통시장에서도 거래를 자제해왔다. 대신 국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다양하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유통성을 주입하거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했다.

판 총재의 말대로 인민은행의 국채 거래가 재개되면 20여 년 만에 통화정책 도구가 부활하는 것이며, 10년 만에 자금관리 방식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싱가포르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수석 중국 전략가는 “이는 향후 몇 년 동안 통화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개혁을 분명히 나타낸다”며 “상업은행과 정책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가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개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침체된 중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 거래는 더 많은 시장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통성 관리에 있어 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

또 이는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나 지출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인민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매해 유통성을 조절하는 것은 서구권의 양적 완화를 떠올리게 한다. 다만 판 총재는 이번 조치가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규모 통화완화의 형태는 아닐 것”이라며 “인민은행의 채권 거래는 매수와 매도를 모두 포함하는 유통성 관리 도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판궁성 총재 “재정부와 협의 중”
2014년 MLF 도입 후 최대 개혁
‘침체 경제 살리기’ 밀거름 기대
총재 “양적 완화 아니다” 일축**

작년 말 유통성 조절을 위한 국채 매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인민은행이 유통 시장에서 국채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중앙금융공작회의에서 “통화정책 도구상자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국채 거래를 차츰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 조치는 2000년대 초 이후로는 채택되지 않았던 정책 옵션이다. 인민은행은 그동안 프라이머리 시장에서 국채를 직접 거래하지 않았으며

러시아 품은 베트남... ‘대나무 외교’ 엇갈린 반응

**FT “실리주의 외교” 결국 승리
美 “지원 제공 안 돼” 우려 표명
일각 “신뢰 잃을 수도” 반응도**

북한 방문을 마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새벽 베트남에 도착, 국빈 방문 일정에 나섰다. 주요 외신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 구축에 나선 베트남을 놓고 다양한 평가가 엇갈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관계를 차례로 형성하면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중립유지외교)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새벽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에 내렸다. 베트남 부총리와 공산당 대외관계위원장 등이 그를 영접했다. 정오에는 하노이 주석관에서 열린 환영행사에 나섰다. 이후 베트남 국가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 등 권력 서열 1~4위를 모두 만났다.

양국은 무역과 경제·과학·기술 분야를 논의하고 국제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앞서 전날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 ‘난단’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베트남에 원자력 과학기술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전 산업 발전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 주요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은 그동안 미국 등 서방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9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12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각각 베트남을 방문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다. FT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으로 베트남의 ‘실리주의 외교’가 결국 승리를

거뒀다”고 높게 평가했다.

푸틴의 베트남 방문에 앞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계속하며 세계적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 어떠한 지원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FT는 향후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가 ‘붕괴(Disrupt)’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두 개로 쪼개진 글로벌 영논리 속에서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중립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에서 모두 이익을 얻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의도에도 끌려가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푸틴의 방문으로 “베트남이 서방 국가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동안 중립을 지켜온 베트남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김준형 기자 junior@



SK, 219개 계열사 대폭 손질... SK이노·E&S 합병 검토

적자·중복사업 싹 터는 최태원, 이달말 경영전략회의서 구체화

SK그룹이 사업 포트폴리오부터 조직 문화까지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현재 2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대거 정리하고, 다소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주4일제' '유연근무제'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이달 말 열리는 SK 경영전략회의에 앞서 경영진 교체와 계열사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28일부터 이틀간 경기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열리는 SK 경영전략회의에서 사업 리밸런싱(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SK가 보유한 계열사는 219개로 우리나라 그룹 중 1위다. 삼성(63개)과 현대차(70개) 등 주요 그룹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그룹 사업의 한 축인 '그린·바이오' 사업 재편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계열사 협력 체제 구축에 힘을 실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SK는 올해 초부터 다양한 태스크포

23조 투자한 SK온 CCO 교체
배터리 수요 정체로 흑자 불투명
일각 "엔부브 합친 후 상장 가능"

2.3조 손실 SK스퀘어 대표 해임
23개 자회사 대부분 적자 행진
박성하 사장 연임 석달만에 문책

SK렌터카 8200억 PE에 매각
SK네트웍스, AI 육성 재원 마련

스(TF)를 발족해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자금난에 시달리는 SK온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모회사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이 거론된다. SK온은 지금까지 23조



최태원 SK 회장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흑자 전환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SK E&S는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알짜' 계열사로 꼽힌다. 두 회사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SK온의 재무구조 정상화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석유부터 친환경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자산 100조 원 이상의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그룹 지주사인 SK㈜가 각각 지분 36.2%, 90%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SK㈜인 만큼 합병 결정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비상장사인 SK E&S와 달리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은 주주들의 찬성도 얻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합병을 결정한다고 해도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 손해가 된다면 쉽게 진

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해명 공시를 내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SK온과 SK엔부브의 합병 뒤 상장 방안,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지분을 일부 매각해 SK온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투자형 중간지주사를 표방한 SK스퀘어도 고강도 재편이 예상된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윈스토어 등을 비롯해 모두 23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SK스퀘어는 2조33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SK네트웍스는 이날 SK렌터카 매각을 의결했다. SK네트웍스는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티에쿼티파트너스에 SK렌터카 지분 100%를 8200억 원에 양도했다. 이 역시 SK 리밸런싱의 일환이다. SK네트웍스는 인공지능(AI)을 신성장 분야로 정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SK렌터

카를 팔기로 했다.

SK팜테코, SK바이오팜, SK케미칼, 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 SK 제약·바이오 계열사도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계열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SK가스, SK에코플랜트 등이 각자 영위하는 수소 사업도 통합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문책성 경질도 잇따를 전망이다. 박성하 SK스퀘어 대표이사가 연임 3개월 만에 해임됐고, SK온 최고사업책임자(CCO)로 지난해 8월 영입된 성민석 SK온 부사장은 10개월 만에 CCO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달 초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질됐다.

그룹 차원의 조직 문화 변화도 감지된다. SK수펙스, SK(주),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가 도입했던 주4일제(격주 또는 월 1회), 유연 근무제, 자율 좌석제, 재택근무 등을 폐지·축소하고 점심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민서 기자 viajaportlune@
송영록 기자 syr@

하반기 반도체·조선 '맑음'... 자동차·화학은 변수 많아 '혼조'

환경협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 車, 공급망 불안·전기차 전환 주목 석유화학, 中 경기부양에 실적 좌우 건설, 고금리·고물가 탓 침체 계속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요 산업별로 '반도체 및 전자 전기', '조선' 산업은 호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 '이차전지' 산업은 혼조, '건설' 산업은 부진이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상업 연세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경

제 전망' 주제 발표에서 올해 글로벌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3.4%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교수는 "인플레이션은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분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의 요인으로 언제든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석 환경협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책임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4%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수출 증가가 성장률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되겠지만, 민간 소비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여 우리 경제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도체 및 전자전기의 수출은 수요 확

대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른 글로벌 IT 경기 회복으로 한국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과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글로벌 수요가 증가했다.

조선업계는 10여 년 만에 호실적을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원자재인 후판 가격 인상으로 신조선가도 상승함에 따라 고가 수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공급망 불안정 △세일즈 방식 전환(소규모·온라인 △첨단 기술과의 융합(커넥티드카·자율주행) △전기차 전환 등으로 시장의 변동 요인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로의 동력 시스템 전환이다.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은 중장기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겠지만 초과 공급으로 부진했던 업황의 완만한 개선이 전망된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수요침체와 설비 확장이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었던 만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성과가 향후 업종 실적 회복의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경기는 극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된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개별 사업의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수요 부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가 격화되는 점이 핵심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통욱 기자 toto@

LS전선 세계 첫 인공 에너지섬에 2800억 규모 해저 케이블 공급

LS전선이 세계 첫 인공 에너지섬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한다. LS전선이 벨기에 전력회사 엘리아(ELIA) 사와 약 2800억 원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LS전선은 ELIA가 벨기에 해안에서 약 45km 떨어진 북해에 건설하는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섬에 해저케이블을 공급한다. 이 인공섬은 3.5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결해 전력을 저장·분배·관리하는 부유식 구조물이다. 2030년 완공되면 본토와 영국, 덴마크 간 에너지 공급을 조절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박민용 기자 pmw7001@

롯데케미칼 "배터리 화재 지연" '1000도' 견디는 플라스틱 개발

롯데케미칼은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을 지연할 수 있는 고강성 난연 폴리프로필렌(PP)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리튬이온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의 주요 화재 원인은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이다. 전기차의 열폭주 현상은 물리적 충격, 과전압, 과방전 등 전기적 충격에 의해 배터리 내부 온도가 단 몇 분 만에 약 1000℃ 이상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다.

기존 배터리에 적용되던 금속 소재는 연비 개선, 원가 절감의 목적으로 플라스틱으로 바뀌는 추세다. 롯데케미칼은 짧은 유리점유(SGF)가 적용된 소재(PP/SGF)와 긴 유리점유(LGF)로 강성을 보완한 소재를(PP/LGF)를 개발했다.

자체 배터리 열폭주 시험을 통해 1000℃ 이상의 온도에서 성형품 본래의 형태를 유지한 채로 PP/SGF는 300초 이상, PP/LGF는 600초 이상 견디는 성질을 확인했다. 김민서 기자 viajaportlune@

성수동 빌딩 가보니 로봇이 알아서 주차 커피 심부름도 척척



현대위아가 개발한 주차 로봇이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있다. (왼쪽 사진)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달이 딜리버리가 팩토리얼 성수에서 음료를 배달하는 모습.



사진제공 현대차·기아

현대차그룹은 20일 현대차·기아의 배달 로봇 '달이 딜리버리'와 현대위아의 '주차 로봇' 서비스를 팩토리얼 성수 빌딩에서 시작했다. 팩토리얼 성수는 서울 성수동에 들어선 이지스 자산운용의 로봇 친화형 빌딩이다.

이곳 근무자들은 달이 딜리버리가 제공하는 음료 배달 서비스와 주차 로봇이 제공하는 자동 주차·출차 서비스, 안면인식 출입 등 현대차그룹의 최첨단 로보틱스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고객이 모바일 앱을 통해 음료를 주문하면 달이 딜리버리가 지하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 등 음료를 수령해 고객이 있는 사무실이나 회의실까지 배달해준다. 달이 딜리버리는 건물 엘리베이터와 출

이지스 자산운용의 팩토리얼 성수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기술 집약

입문 등 관제 시스템과 통신하며 스스로 건물의 각 층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 배달한다.

로봇이 배송 목적지에 도착하면 카메라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스스로 수령 대상자를 인식해 음료를 전달한다. 현대차·기아가 자체 개발한 안면인

식 기술은 정확도가 99.9%에 이른다.

또 현대위아는 자동 주차 로봇 서비스를 시작했다. 주차 로봇이 상용화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주차 로봇은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에 들어가 바퀴를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로봇의 두께는 110mm로 어떤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장착된 라이다 센서를 통해 로봇이 차량 바퀴의 크기와 위치를 정확히 인식한다. 현대위아의 주차 로봇은 올해 3분기 팩토리얼 성

수에 적용될 예정인 현대차·기아의 '자동 충전 로봇(ACR)'과 연계돼 고객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달이 딜리버리와 자동 충전 로봇을 비롯해 로봇에 적용된 안면인식 시스템을 건물의 출입 시스템에도 적용하면서 '로봇 토털 솔루션'이라는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나아가 현대차·기아는 여러 대의 배송 로봇을 관제할 수 있는 '다중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강문정 기자 kangmj@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언젠가부터 당신의 금융생활이
달달해졌다면

그건 아마 위니프렌즈 때문일 거야

가는 곳마다 혜택을 주고
플렉스할 때마다 할인을 받고

지금 당신의 가방에도
금융행운템, 위비를
달아보세요

자꾸 좋은 일이 생길지도!

우리 곁엔 위비가 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 삭제는 개악”... 소상공인들 강력 반발

“소상공인 최소 배려 없어 참담
개정안 당장 중단” 목소리 높여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강조
고용지원금 등 명문화 촉구도

“희망의 불씨를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해 달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는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사와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기준(오른쪽 두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다 죽이는 최저임금법 개악안 당장 폐기하라’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나아가고 있다고 봤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해온 소상공인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 구분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다. 이어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일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예고하며 상대적 박탈감까지 선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명시된 규정인 구

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업무상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일정 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 회장 직무대행은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금 등을 명문화하고,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경재 대한속박업중앙회장, 이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 유덕현 소공연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심 협회장은 “아쉽지만, 편의점은 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다”며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은 법에 명시된 대로 구분해서 임금을 주자는 요구가 틀린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

의 근거를 없애지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도제 시스템으로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산업인만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 기간에 해당 근로자는 노동자의 형태이지만 동시에 학습자이기에 노동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영자는 고용주이면서 교육담당자이기도 하다”며 “이런 특수한 형태의 업종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미용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제 시스템 근로자에게 부득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팬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매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차등적용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번개장터 “중고거래, 국경 없다” 日플랫폼 제휴...실적 반전 박차

메루카리와 단독 파트너십 체결
현지 상품 구매·배송 원클릭으로

검색해도 찾아낸다. 또한, 번개장터의 에스스로 기반 안전결제 서비스인 ‘번개페이’를 이용해 관부가세 및 배송비를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해외 세컨핸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일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고도화하며 실적 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번개장터는 이후로도 다양한 해외 세컨핸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해외 탭 서비스를 확장해 보더리스(borderless)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계획이다.

20일 번개장터는 일본 메루카리와 단독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해외 탭’ 기능을 신규 론칭했다. 이를 통해 일본 현지에서 중고 명품은 물론 빈티지 패션 상품까지 원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번개장터는 다양한 패션 상품과 고가 거래를 중심으로 규모를 키워 수익을 낼 방침이다. 번개장터는 지난해 패션 트렌드를 알려주는 ‘브랜드랭킹’과 중고 시세를 제공하는 ‘하이엔드 탭’을 론칭하는 등 홈화면을 개편해 명품 중고거래 서비스를 강화했다. 올해 들어선 분할결제와 가격제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2013년 출범한 메루카리는 월간 이용자 수 약 2200만 명 이상, 누적 판매 등록 수 30억 건 이상을 기록하는 일본의 대표 중고거래 앱이다. 특히, 패션 카테고리 거래가 활발하며 중고 명품부터 브랜드 의류, 주얼리, 시계, 패션 잡화 등 다채로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번개장터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1분기 패션 카테고리 유료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작년 4분기 대비 43%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또 올해 3월 한 달간 패션 카테고리 유료 결제 거래 건수는 8만 건을 돌파하며 역대 거래 건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국구대상비대면 택배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번개장터는 메루카리와 단독 파트너십으로 중고거래의 국경을 없애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더 풍성한 리커머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번개장터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메루카리의 패션 카테고리 세컨핸드 제품은 월 평균 40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번개장터의 수익성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번개장터의 매출은 2019년 120억 원에서 지난해 341억 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적자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6억 원에서 216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2022년에는 매출 규모를 웃도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번개장터는 해외 탭 내에서 국내 상품을 거래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검색해도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진화된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해외 탭 검색에 탑재된 인공지능(AI) 기술로 메루카리 일본 현지 사용자들이 일본어로 등록한 상품을 번개장터 앱에서 한국어로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6월호 발매

BRAVO SPECIAL
늦었지만 레벨 업! 중년 자유여행

- PART 1. 낯선 설렘의 매력 '자유여행'에 빠진 중년들
- PART 2. "뭐부터 하지?" 자유여행 초보를 위한 이정표
- PART 3. 날개 단 자유여행 중수, 레벨 업 위한 여정
- PART 4. "편한 여행은 싫어" 오지 찾는 자유여행 고수들
- PART 5. 몰랐던 여행 성향 알아볼 방법 3가지
- PART 6. 제약없이 즐기는 무장대 여행
- PART 7. 60세, 여행하기 딱 좋은 나이

BRAVO INTERVIEW

작곡가 김형석
다시 쓰는 추억

맨슬리 이슈

시니어 건강관리에 시바람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왕릉, 한 점
흥으로 돌아가는
'주검의 처소'만은 아니다

브리브 여행

이 땅을 걸으며
무해한 하루,
김포 평화누리길

귀농귀촌

실패 확률 낮은 귀농이다

세무 가이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여기면 '과태료 폭탄'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日, AI패권 위해 ‘脫네이버’ 속도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 지속

孫 “실패 두려워 말고 모색해야” 소뱅 “네이버와 지분 협의 계속” ‘라인야후·페이페이 협업’ 강조

손정의(사진)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일본이 AI 패권을 가져오기 위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퍼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손정의 회장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소프트뱅크 정기주주총회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큰 움직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프트뱅크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 등 스타트업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으나, 이에



라인야후 사태 일지

2023년	11월	라인야후, 네이버 클라우드 통한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3월	일본 총무성 1차 행정지도,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 체제 개선 요구
	4월 1일	라인야후, 일본 정부에 2026년까지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내용 보고서 제출
	4월 16일	일본 총무성, 재발방지책 불충분 사유로 2차 행정지도, 7월 1일까지 대응책 보완 요구
2024년	5월 8일	라인야후 CEO, 네이버와 위탁관계 순차적 종료 및 기술 독립 추진 내용 대응책 발표 네이버 출신 신중호 CPO, 이사회서 제외 발표
	6월 14일	라인야후, 일본서 라인페이 서비스 순차 종료 발표
	6월 18일	라인야후, 주총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계획 및 일본 내 서비스 위탁 종료 발표
	6월 20일	소프트뱅크, 주총서 “네이버와 협의 중... 협상 아직 안 됐다” 입장 발표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투자를 지속할 거란 의미로 해석된다. 소프트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 고토 요시미츠도 최근 “AI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투자 회사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의 AI 투자는 다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이날 미국에서 AI 기술에 쓰일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월에는 블룸버그통신이 손 회장은 엔비디아와 경쟁할 반도체 제조사를 설립을 위해 10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또 영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그래프코어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소프트뱅크는 비전펀드 자산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며 다음 투자 대상을 모색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현금 자산은 6조2000억 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의 AI 투자 청사진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9일 실적 발표에서 “자체 AI를 개발하겠다”며 “AI

서비스와 차세대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AI 프로젝트에 약 88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설계 자회사 암(ARM)에서 AI 칩을 개발하고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이를 탑재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용인공지능(AGI)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도 대규모 지원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소프트뱅크가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를 정비하는 데 최대 3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AI에 대한 소프트뱅크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 라인

야후가 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를 제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소프트뱅크 슈퍼컴퓨팅 인프라 3700억 원 보조금 추가 지급 뉴스와 라인야후 사태를 보면 ‘슈퍼컴퓨팅+데이터+플랫폼’으로 일본 자체 소비인 대규모언어모델(LLM) 기술 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만들어 글로벌 리더 포지션을 차지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빅픽처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프트뱅크는 이날 주총에서도 탈(脫)네이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라인야후로부터 (지분관계 재검토) 요청을 받아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의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지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CEO는 “야후 이용자는 8500만명, 페이페이 이용자는 6400만명으로 일본 인구 대다수가 우리 그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야후, 페이페이 서비스의 협업이 주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최근 일본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종료하고 페이페이를 도입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금융당국 ‘가상자산 공시’ 시대 열리나

금융위·금감원 “시스템 구축 검토” 업비트는 2년간 운영하다 중단 업계 “투자 폭 좁아질 것” 우려 법제화 안되면 프로젝트와 갈등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미 국내 업계에서 복수 업체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당국 차원에서 만드는 공시 시스템도 어려움을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부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당시 포함된 국내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시업에 대해서는 우선 공적 부분의 공시업무 수행 방안(통합공시시스템)을 검토하고, 추후 민간 공시업 별도 설정에 대한 실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간 업계에 가상자산 공시 시스템이 없던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2019년 4월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직접 소통하며 공시 제도를 운영했다. 공시를 원하는 프로젝트가 업비트에 공시 내용을 보내면 내부 검토를 거쳐 업비트에 게재하는 방식이다.

정상 운영되던 업비트 공시 제도는 약 2년 만에 중단됐다. 2021년 3월 업비트는 고머니2(GOM2)가 5조 원 규모의 북미 펀드인 셀시우스 네트워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업비트는 고머니2를 상장폐지했다. 고머니2 허위 공시를 발단으로 업비트는 기존 공시제도를 일시 중단했다.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공시 내

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 필요한 제도 인이 맞지만, 모든 공시를 다루기 어려워 자칫하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은 부담될 여지가 있다.

당국은 보고서에 향후 공시의무 규제 도입 시, 통합공시시스템 운영은 공적기관(공공기관, 자율협약기구, 법정협회 등)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당국 차원에서 공시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에서 내는 자발적 공시가 다일 것”이라며 “정상적이고 성실하게 공시하는 프로젝트들 위주로 상장 관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공시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지원 차원에서의 불이익”이라며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들이 줄어들어 투자폭이 좁아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기구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와의 갈등도 불가피하다. 일례로 5개 원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다사)는 자율협의체로 법적기구가 아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당사 이해위믹스(WEMIX) 가상장폐지됐다. 당시 위믹스 투자자들은 다사를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업계에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화되지 않은 기구는 결국 부당 공동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 제4이통사 진입 무산 ☑ 중소알뜰폰 위기감 고조 ☑ 이통3사만 전환지원금 혜택

힘빠진 ‘정부 통신정책’... 단통법 폐지 힘 실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제4이통사 진입은 무산됐고, 중소알뜰폰 사업자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렇다 할 효과 없이 이통3사만 덕을 본 가운데, 야당에서 돌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내세우면서 단통법 폐지만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일 박종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이어받아 재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며 △신규통신사업자(제4이통) 진입 지원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이통3사 요금제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신규사업자 진입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및 주주구성 문제로 무산됐다.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았고 스테이지엑스 측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취소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중

회의적이던 野, 폐지안 곧 제출키로 정부, 정책 엇박자 실패... 혼란 가중 과기부 “통신정책 전반 다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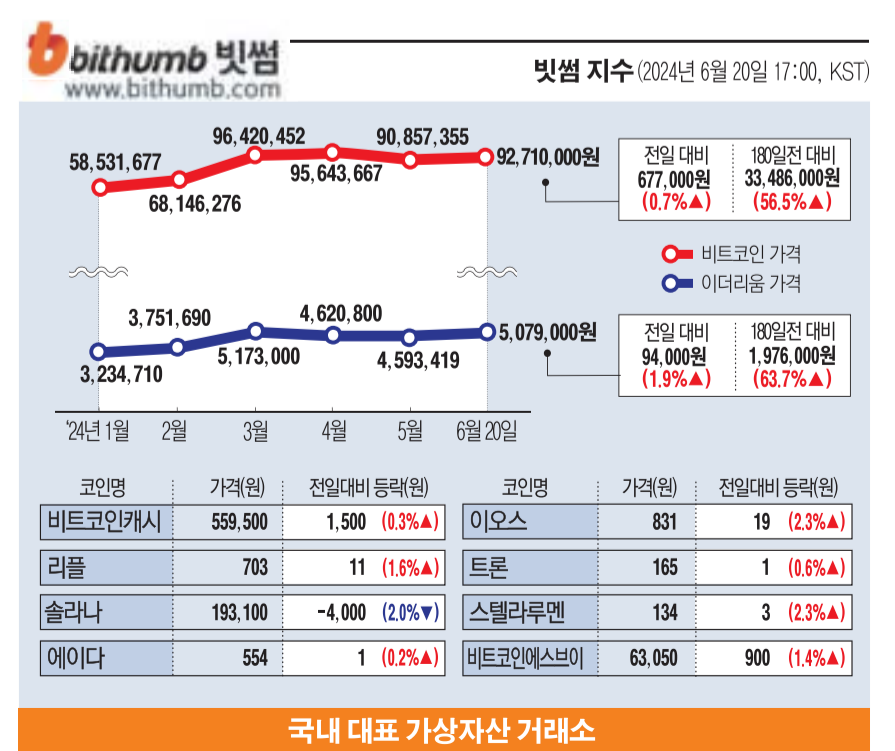
론이다. 알뜰폰 사업자 사이에서는 위기론이 거세다. 알뜰폰 신규 가입자 증가수는 올해 1월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는 1만4451명 늘어났다. 올해 1월 7만8060명과 비교하면 81.5% 감소했다. 반면 알뜰폰에서 통신3사로 번호 이동은 같은 기간 4만2272명에서 5만9276명으로 증가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그간 추진된 정책이 ‘엇박자’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은행권의 알뜰폰 진

출을 허용하면서 오히려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고,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고 통신직전 도입된 전환지원금은 오히려 이통3사만 덕을 봤다. 여기에 제4이통 신규사업자까지 추진하며 모순을 키웠다.

안정성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제4 이통사 출범은 정부가 알뜰폰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정부가 강조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고 정책혼란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이윤배반적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책 간 충돌,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종합적인 연구반을 가동해 제4이통을 비롯해 통신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유리 기자 inglass@



해외 입맛 흥린 K푸드

“초코파이, 제사상 올리기도...” 베트남 조상님도 찾는 ‘韓의 맛’

가보니 하노이 후지마트

과자·라면·김·음료·양념까지 다양
작년 오리온 현지 매출 4755억 기록
농심·삼양식품 매대 압도적으로 커
“소비자들, 맛있고 안전하다고 인식”



베트남 후지마트를 찾은 현지인들이 불닭볶음면, 신라면 등이 가득한 한국 라면 매대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과자·라면·김·음료수·식초·설탕까지...
13일 베트남 하노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후지마트(FUJIMart)에 들어서니 매대 곳곳에는 다양한 한국 제품이 가득했다. 후지마트는 베트남 BRG그룹과 일본 스미토모사가 합작 운영하는 베트남의 중형 슈퍼마켓이다. 이날 찾은 점포에선 눈을 돌릴 때마다 국내 기업 제품이 보여 마치 한국마트에서 장 보는 느낌이였다.

한국 제품이 가장 눈에 띄는 매대는 과자 코너였다. 오리온, 롯데월드 등 국내 기업의 제품이 과자 매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오리온은 대표 제품인 ‘초코파이’, ‘오스타(O Star·포카칩)’, ‘꼬북칩’, ‘카스타드’ 등 다양한 과자 종류를 선보이고 있었다. 꼬북칩을 집어든 한 10대 베트남 소녀는 “꼬북칩은 어떤 마트를 가도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제품”이라며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쇼핑할 때마다 구매한다”고 말했다.

1995년 초코파이를 수출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오리온은 매년 성장세다. 오리온 베트남법인 매출은 2020년 2920억 원, 2021년 3414억 원, 2022년 4729억 원, 2023년 4755억 원으로 순증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초코파이는 베트남 가족제사상에 올릴 정도로 인기이고 샌드박스 스낵도 현지 1위를 할 정도”라며 높은 인기를 전했다.

한국 대표 K푸드인 라면의 위세도 당당했다. 특히 농심과 삼양식품 매대가 압도적으로 컸다. 농심은 ‘신라면’, ‘짜파구리’, ‘너구리’ 등이 많았고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시리즈가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이날 후지마트 직원들은 라면 제품이 팔릴 때마다 매대를 부지런히 채울 정도로, 금

방금방 팔리고 있었다. 팔도의 어린이 혼합음료 ‘뽀로로’도 인기 상품이었다. 전날 들린 베트남 고속도로휴게소 내 마트에서도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음료였다. 팔도는 2007년부터 뽀로로 음료를 수출하고 있는데 베트남은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과 함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다. 한국 대표 반찬인 김도 매대를 통째로 차지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 대상의 글로벌 브랜드 오푸드(O’ Food)와 오푸기가 김자반을, CJ제일제당이 김스낵을 각각 선보이고 있었다. 한국 중소기업의 반찬용 김 제품도 많았다. 한국 김은 세계적으로 건강식이 인기를 끌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글로벌 수출액 1조 원을 처음 돌파하기도 했다.

한국 식음료 제품은 현지 느낌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베트남어로 표기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한글 제품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베트남인들이 한국 제품을 고급스럽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후지마트 관계자는 “한국 식료품은 맛있고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며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아 K 브랜드는 인기 상품”이라고 말했다.

하노이=글·사진 김지영 기자 kij42@

“베트남은 포스트 차이나...” 식품업계, 생산공장 증설 속도

대상, 하이즈영·흥연성에 2공장 증설
팔도, 띠이닝성 공장서 라면·음료 생산
오리온, 3공장 건립... 생산시설 증축도

식품업계가 세계적으로 뜨거운 K푸드의 인기
에 부응, 특히 한류 붐이 대단한 베트남을 중심으로
생산공장을 신설하거나 설비를 증설하는 등 대
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2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의 자회사 대상베
트남과 대상트비엣은 최근 베트남 북부 하이즈영
성과 흥연성에 신규 공장동을 각각 1개씩 증설했
다. 1994년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대상은
현재 4개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다. 대상이 이번
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하면서 하이즈영 공장의 연
간 생산능력(CAPA)은 기존 대비 40% 증가했
다. 특히 이 공장엔 시장점유율 1위인 조미 김 라
인과 성장잠재력이 큰 산온간편식제조라인을 새
롭게 구축했다. 흥연공장도 기존보다 2배 연간 생
산능력이 2배 넘게 커졌다. 육가공제품부터 현지
수요가 높은 스프링롤 등 간편식을 생산한다. 김
치 생산라인도 새로 구축했다. 대상 관계자는 “베
트남은 대상의 글로벌 사업 핵심 국가로, 2023년
식품과 소재 사업을 합쳐 2000억 원 이상 매출을
냈다”며 “중가 김치의 현지 생산을 통해 시장점유
율을 확대하는 한편, 간편식도 적극 키워갈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hy(옛아쿠르트) 계열사 팔도는 4월 베트남 남
부 띠이닝성 인근에 베트남법인 팔도비나의 제2
공장을 완공했다. 2017년 준공한 제1공장과 신설
한 2공장서 라면과 음료를 생산하고 있다. 팔도
는 2공장에 생산설비를 지속 확충, 해외생산 및
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라면 생산라
인 증설이 2025년 완료되면, 연간 생산량은 4억
개 이상으로 늘어날다. 기존 1공장 생산량까지 합
하면 베트남 현지에서만 연간 7억 개 라면을 생산
할 수 있다.

1995년 ‘초코파이’ 수출로 베트남에 진출한
오리온은 베트남법인을 설립, 현재 호찌민(미

식품업계, 베트남 생산기지 투자 현황

대상	※ 출처: 각 사
건설 지역	베트남 북부 하이즈영성·흥연성 (각 제2 공장 증설)
생산 규모	연간 생산능력 하이즈영성(전년비 40% ↑)·흥연성(전년비 100% ↑)
완공 연도	2024년 6월
팔도	
건설 지역	베트남 남부 띠이닝성 인근
생산 규모	연간 라면 1억개, 음료 1억5000만개
완공 연도	2024년 4월
오리온	
건설 지역	베트남 호찌민(미푹공장), 하노이(엔풍공장)
생산 규모	신·증축 예정, 하노이 제3·4 공장 건립 추진
완공 연도	연간 8500억원 규모(하노이 제3·4공장 제외)
완공 연도	2027년 예정

푹)과 하노이(엔풍)에 2개 공장을 운영 중이다.
오리온은 현지 판매량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
해 지난해부터 약 1000억 원을 투입, 제3공장 건
립과 함께 기존 생산시설의 신·증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하노이에 3공장 대지를 매입해 설계
를 완료했고, 하노이 제4공장 부지도 확보했다.

호찌민 미푹공장은 기존 생산동을 증축해 5개
생산라인을 증설하고, 하노이 엔풍공장은 생산
동 신축과 기존 공장 증축을 통해 스낵, 비스킷
등 9개 생산라인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 14개 모든 생산라인이 본격 가동할 전망
이다. 오리온은 신설 추진 중인 3·4공장을 제외
하고도 연 8500억 원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CJ제일제당도 베트남을 동남아 수출 전초기
지로 삼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영향력을 넓혀
가고 있다. 2022년 초 베트남 통안성 견훤현에 첫
해외생산기지로 키즈나 공장을 준공했다. 이곳에
서 생산한 김치, 만두, 롤, 즉석밥 등 K푸드는 생
산 직후 인근 국가에 발 빠르게 공급되는 구조다.
특히 ‘비비고 김치’는 베트남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압도적 1위다. 현지 김치 시장 규모도
CJ제일제당 진출 후 3배 가까이 커졌다.

문현호 기자 m2h@

여름 가전 불티... 유통업계, 폭염에 ‘신바람’

선풍기·서큘레이터 판매량 29% ↑
냉감 침구류 매출도 전년비 50% ↑



고객들이 전자랜드 용산본점에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전자랜드

6월 서울 낮 기온이 66년 만에 최고치
를 갈아치우는 등 전국적인 폭염이 기승
을 부리고 있다. 아직 초여름임에도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까지 확인되는 등
무더위가 평년 대비 이른 시기에 본격화
되면서 여름 가전과 냉감 제품 등 판매 수
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자랜드가 1
일부터 19일까지 판매한 에어컨 수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 같은 기
간 선풍기와 서큘레이터 판매량 역시 29%
늘었다. 롯데하이마트의 6월 전국 에어컨
판매량도 1년 전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됐다.

열대야 속 냉감이 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마트가 1일부터 18일까지 냉
감 원단을 이용한 이불, 베개 등 냉감 침구
류 매출을 취합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신장했다. 또 접촉냉감 기능성
소재의 시원한 여름 휴웨어는 60%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롯데온에서도 6월 냉감
패드와 시어셔커 차렵이불 등 여름 침구
매출이 40% 증가했다.

패션업계도 일상생활 속 무더위를 조금
이나마 식혀줄 쿨링 아이템 강화에 나서
고 있다. 패션그룹형지는 이른 더위 속 냉
감 상품 수요가 늘자 인도네시아 등 해외
공장을 가동해 냉감 상품 추가 생산에 돌
입했고 스포츠웨어 K2는 초냉감 소재인
‘코드텐 아이스스카이 데님’ 상품을 출시

했다. 여름용 라피아햇으로 유명한 ‘헬렌
카민스키’ 브랜드는 롯데 에비뉴엘 잠실
점 매장을 리뉴얼하고 뽀뽀샵 혜택을 확
대해 여름 고객 눈길 끌기에 나섰다.

전국 1500여개 매장이 있는 생활용품점
다이소도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
도록 ‘이지쿨(EASY COOL) 의류’ 라인
업을 확대해 고객을 맞고 있다. 특히 올해
에는 강력한 냉감 소재로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초냉감’ 라인을 추가하고 냉감의
류와 메쉬를 소재로 총 30여 종 상품을 판
매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을 강타한 무더위는 이동
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사량이 많은 데
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기상청은 당분간 체감온
도가 높아 무더위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 여름 기후 전망’에서도 올
여름 평균 기온이 역대급 무더위를 기록
했던 작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
측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노브랜드 장착한 이마트24, 100호점 돌파

도입 두달도 안돼 달성... 매출도 ‘쑥’

이마트의 대표 자체 브랜드(PB) ‘노브
랜드’를 입점한 이마트24 매장이 100호점
을 돌파했다.

이마트24는 지난 주말 이마트24 세종
충남대병원 헬스케어센터점이 50여 일
만에 노브랜드 취급 100호점이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노브랜
드 상품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기
존 계획보다 약 2주 정도 빠르게 100호점
을 돌파했다”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
고 있다”고 전했다.

노브랜드 취급은 이마트24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노브랜드 입점 가맹점의
경우 상품 도입 전보다 하루 평균 매출이
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점의 매
출 성장률은 더 가파르다. 기존 매장의 평
균 일 매출 대비 20% 이상 성장해 경영주
수익도 상승하고 있다.

이마트24에서 특히 인기인 노브랜드
상품은 중감자칩, 초코칩쿠키 등 간식류
를 비롯해 닭가슴살, 매콤달콤닭강정, 췌



노브랜드가 입점한 이마트24 사진제공 이마트24

불데리아끼닭꼬치, 불고기피자 등 냉동·
냉장 간편식과 3겹회장지, 물티슈, 키친
타월 등이다.

이마트24는 노브랜드 상품이 향후 가
맹점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
다고 판단해 관련 상품을 800개까지 확
대할 예정이다. 기존점 중 노브랜드 상품
도입을 원하는 점포는 본사와 협의해
400~500여종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점
경영주는 월회비 구조를 유지하면서, 노
브랜드 상품 판매 수익을 경영주와 본사
가 배분하는 구조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균형있는 국토 발전 SH가 이어갑니다

이주 희망 서울시민과 서울 입주 희망자
모두를 위한 지방상생형 순환주택 '골드시티'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국토 균형 발전과 함께
주거 행복의 꿈을 이어드립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주택시장 안정화

지방 인구 유입 및 활성화

- 고품질주택
- 여가 문화 레저
- 일자리 연계
- 광역 교통망

골드 시티

인생 2막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서울시민 (은퇴자,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위해 청정 자연과 도시 인프라 (병원, 문화 여가 등) 를 갖춘 지방 도시에 고품질 백년주택과 관광, 휴양, 요양, 의료, 교육시설을 조성해 이주 지원하는 서울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

골드시티 기대효과

서울

이주자 보유 기존주택의 청년·신혼부부 재공급을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방

고품질주택, 여가·문화·레저, 일자리 연계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골드시티 이주자를 위한 맞춤 혜택

노후자금 마련

서울주택 유동화 (주택연금 등) 및 임대를 통한 이주자 노후자금 마련

경제활동 제공

다양한 소일거리 제공을 통해 일상에 활력 부여

지역정착 지원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융화 도움

취약층 밀린 통신비 최대 90% 탕감... 오늘부터 접수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 지원

21일부터 금융권 대출에 더해 통신비나 휴대폰 소액 결제까지 연체해도 한 번에 모든 빚을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 밀린 통신비를 감면받고 3개월 이상 잘 갚으면 끊겼던 휴대폰을 다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신채무 연체자 37만 명 가량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과기부와 금융위는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안고 있는 경우, 일상생활이 힘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화조차 이용할 수 없을 만큼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라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의 35%가량이 통신채무를 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통신채무

통신사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서 금융·통신채무 일괄조정 10년 장기 분할상환도 가능해져 3개월 이상 성실 납부 이용자는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서비스 이용

연체자는 약 37만 명이고, 전체 연체금액은 500억 원 수준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신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의 채무뿐만 아니라 통신기관의 채무까지 한꺼번에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복위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면 5개월 분납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 조정된다.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서민금융통합센터를 찾아 상담직원과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통신

요금을 30만 원 연체한 채무자가 원금 감면을 70% 받는다면 통신채무는 9만 원으로 조정되고,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면 한 달에 750원씩 상환할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SKT·KT·LGU+), 알뜰폰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 3사는 30% 일괄 감면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휴대폰 결제사는 상환여력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한다.

또한, 이번 제도 도입으로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납부한 이용자는 연체 금액이 남아 있어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 복지 연계 등 성실상환, 재기를 위한 종합지원을 신복

위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신복위에 통신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신용점수 상승 방법부터 재무관리법 등 신용상담도 지원한다.

고의로 통신비를 연체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복위의 재산조사,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감면을 등을 정한다. 국제청 등 행정기관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신복위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채무조정이 결정된 이후더라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효력을 중단시킨다. 김 국장은 "휴대폰을 못 쓰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데다 구직에 필요한 휴대폰 본인 인증 같은 절차도 밟을 수 없어서 통합 채무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혜영 기자 haha@



20일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개최된 청소년 상담채널 '라임' 앱 오픈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금융네트웍스

삼성금융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로 나섰다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는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함께 개발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의 상담 플랫폼인 '라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라임은 모바일 환경에 친숙한 청소년들이 앱을 통해 마음건강 관리를 생활화하고 우울, 불안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개발됐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이날 삼성금융캠퍼스에서 교육부, 생명의전화와 라임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한지아 국민의힘

SNS 상담플랫폼 '라임' 앱 공개 24시간 실시간 상담서비스 제공 상급병원 등 전문기관 핫라인도

의원,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흥원학 삼성생명 사장,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라임은 '라이프메이트(Life-Mate)'의 약자로 청소년의 '인생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친근함을 주기 위해 라임 열매를 캐릭터화한 '라임이'가 앱 디자인에 사용됐다.

앱 개발을 주도한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생명의전화는 청소년이 심리적

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게시판 △채팅 △음성·화상 중에서 선호하는 상담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동일 상담사와 최대 8회까지 연속해서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이 직면한 위기 단계별로 세분된 실시간 상담서비스도 24시간 제공한다. 채팅 상담 중인 청소년이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음성 또는 화상을 통해 연속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할 때 상급병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되는 핫라인을 운영한다.

김재은 기자 dove@

은행·보험업권, 1兆 'PF 신디케이트론' 출범

은행·보험사 각각 5곳 참여 최대 5兆까지 단계적 확대

은행·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조성키로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의 시장 투입 준비가 완료됐다.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1조 원에서 시작해 최대 5조 원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엄정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육성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대출 대상 사업장은 일정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 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 리스크가 없고 대주단 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이다. 또 대상 차주는 해당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기업 PR>

'삼성 iD 노마드' 카드와 실속 여행 떠나세요

여가·면세점 '10만원 이상 결제시 각각 연 1회 2만원 할인 기프트 해외가맹점, 최대 2% 포인트 적립



'삼성 iD 노마드(NOMAD) 카드'는 여행과 쇼핑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기프트 서비스는 물론, 일상 곳곳에서도 실속 있는 적립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여행 △여가 △면세점 각 영역에서 건별 10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할인 기프트 서비스를 영역별 각각 1회씩 제공한다.

여행 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 이용 시 제공된다. 여가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골프,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패션몰, 와인, 공연 이용 건에, 면세점 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신라면세점 온·오프라인 이용 건에 제공된다.

할인 기프트 서비스는 각 혜택 영역별로 제공되며, 통합 연 3회 제공된다. 해외직구를 포함한 해외 가맹점 이용

건에는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항공, 여행, 골프,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쇼핑몰, 할인점, 면세점 업종 이용 건에는 0.5%의 적립 혜택을 준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왓차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정기 결제 시 50%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제공한다. 웨이크백과 써브웨이 30% 할인 혜택을 월 1만 원까지 제공하며, 외에도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제공한다.

DGB생명, 'iM라이프'로 새출발... 김성한 "변액보험 名家 될 것"

"변액보험 자산규모 2兆 목표"

김성한<사진> iM라이프생명 대표는 20일 "iM라이프는 영업역량, 경영전략, 조직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 단계 도약함에 따라 중견보험사로 확실한 성장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시중금융그룹의 내실을 갖춘 생명보험사로, 고객의 미래를 생각하는 '변액보험 명가'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사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DGB생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의 출범을 공식 발표하고 사업 전략 및 새로운 도약 의지

를 밝혔다.

앞서 DGB금융그룹은 iM뱅크(구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맞춰 은행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사명을 바꿨다.

iM라이프는 사명 변경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통해 매출기반 활동에 주력하고, 변액보험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대표는 "자사의 변액보험 순자산은 올해 5월 업계 9위 수준인 1조2639억 원을 기록하며, 2020년말 업계 17위 수준이던 3261억 원 대비 약 4배 급증

했다"며 "신 회계제도(IFRS17)에 대비해 전 직원과 함께 영업 체질을 변액보험 중심으로 변화시킨 데 따라, 단기간 내 변액보험 분야에서 확실한 시장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iM라이프는 △신상품에 대한 전문성 강화 △선제적 고객 요구 파악 △고객 수익률 제고 집중 등을 통해 2026년까지 변액보험 자산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사진 김재은 기자 dove@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 따라붙나

“삼천피 가능하겠지만... ‘K-고질병’ 고쳐야 장기상승”

‘2800 탈환’ 코스피, 진짜 과제는
증권가 예상밴드 “2500p~3150p”
“정부, 금리인하·밸류업 지원 시급”
반도체·조선·車 등 유망종목 꼽아

“도약대에 서 있다. 장기 상승을 위한 탄탄한
장대(금리인하·기업 밸류업)가 필요하다.”

20일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종가
2807.63)을 넘어섰다. 코스피 3000시대를 앞두고
주가의 향방에 대한 전문가 전망을 한 줄로 요약
하면 이렇다.

“주가 상승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시중에 풀
린 갈 곳 없는 돈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기업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추가 지
원책이 필요하다.”

기업과 개인투자자 세제 혜택,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책(배임제 폐지)과 투자 및 인수합병(M
&A)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등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장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가 이어지고, 물가안정과 경기 회복 기
대감이 커진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들의 분석대로라면 꿈의 숫자로 여겨졌던 코스피
3000이 결승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반기 국내 증
시가 몸집과 맷집을 키워가며 3000선에 안착한 뒤
3100(하나증권, 금리 인하시)~3150선(삼성증
권)까지 치고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돈이 갈 곳은 주식시장뿐=“점도표의 올해
한 차례 (금리)인하 전망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참여위원들의 경로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1~2회
인하가 가능하다”(12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
비제도(Fed·연준) 의장)

시장에서는 코스피의 운명이 연준의 통화정책
과 궤를 함께 할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 기업 실적(비용 부담 완화)과도 직결된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장 예상대로 미
국 물가와 고용이 둔화할 경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며 코스피 고점을 3100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하락하
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경감돼 영업이익률 상승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고, 주식시장 활인을 하락으
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상장사
들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8.3%에서 2023년
4.9%까지 2년 연속 떨어졌으나 올해는 7.6%로
반등하고 내년은 8.9%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
비 하락하면서 연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코스피가 2년 5개월만에 2800선을 돌파한 20일 오후 서
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스크린에 지수가 표시돼 있
다. 이날 코스피는 0.37% 상승한 2807.63에 마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였다”며 “영업이익률 개선의 첫 번째 해에 코스피
연간 평균 수익률은 16%이며 올해는 영업이익률
개선의 첫 번째 연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연간 평균 수익률을 적용하면 하반
기 코스피 고점은 3100선이며 2년 연속 상승 시
2년째 되는 해의 코스피 연간 평균 수익률은
4%, 3년 연속 상승 시 3년째 되는 해의 코스피 연
간 평균 수익률은 22%”라고 부연했다.

단기적 조정과 출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적으로는 상승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
가들의 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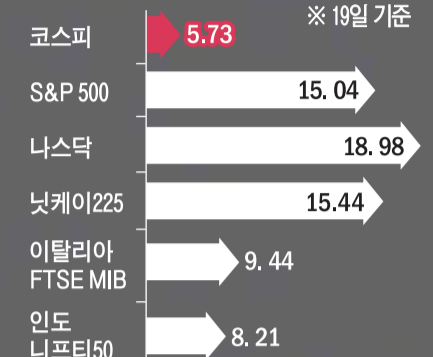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연준의 금리 인
하 시점이 하반기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
며 “하반기 경기는 3분기를 저점으로 미국 경기
회복세에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사이
클이 맞물리면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밴드도 2530~3110선을
제시했다. 경고도 잊지 않았다. 금리 동결 시에
는 고점이 2950선에 머물고, 경기침체 방어용 인
하 시에는 20% 이상 급락할 수 있다고 봤다.

AI 투자, 중국 제조업 경기, 미국 대선 등도 증
시 변수로 꼽힌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증권가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

하나증권	2950~3100p	삼성증권	2650~3150p
한화투자증권	2500~3000p	메리츠증권	2600~3150p
신한투자증권	2550~3000p	미래에셋증권	2570~2990p
현대차증권	2500~3000p	NH투자증권	2500~3100p
대신증권	2540~3110p	키움증권	2500~3000p
한국투자증권	2500~3000p	KB증권	상단 2970p

올해 주요국 증시 상승률 (단위 : %) ※ 19일 기준



※출처: 각 증권사 취합

은 “3분기 실적 개선과 제조업 재고순환 사이클,
AI 투자 확대, 중국 경기 불확실성 해소 등이 우
호적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코스피가 최대
3000(하단 255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
다. 증시 상승의 걸림돌로는 4분기엔 실적 모멘
텀 둔화, 수출 증가율 정점, 미국 대선 전후 재정
이슈 부상 등을 꼽았다.

한국투자증권(2500~3000선), 한화투자증권
(2500~3000선), 삼성증권(2650~3150), 현대
차증권(2500~3000선) 등도 하반기 코스피 상
단을 3000으로 제시했다. 상승인증권(2500~
2900선)과 LS증권(2560~2890선)은 코스피가
3000을 찍을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부의 증시 부양책(금융투자소득세 폐지·기
업 밸류업 지원방안 도입)에 대한 기대도 있다.
노동길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책 정당
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장기 관점에서 지속 추
진될 전망”이라며 “밸류업 관련주의 하반기 전망
은 밝다”고 말했다.

◇믿고 투자할 곳은 어디=증시를 끌고 나갈 유
망 종목으로 센터장들이 꼽은 것은 반도체 등 IT
, 조선, 자동차, 방산, 전력기기 등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AI는 기술 성
장의 초입이다.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기조에 있
어 AI는 하나의 새로운 성장 축”이라며 “반도체
섹터의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
다. 엔비디아가 관련 산업을 이끌고 있고 결국 글
로벌 경제와 기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
고 있다. 두가 알고 있어서 이 트렌드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길 연구원은 “미국의 노후화된 전
력망 교체, AI·전기차 등 전력화 추세, 재생에너
지 확대 추세 등으로 전력기기 호황은 단기에 꺾
이지 않을 전망”이라며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로 공급과잉이 있으면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다”고 전했다. 하나증권은 기준금리 인하를 전제
로 소프트웨어·미디어·이차전지·화학·호텔·레
저 업종을 제시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박스피·금투세에 도망간 개미들 삼천피 가까워도 美증시 삼매경

국내 증권사들은 하반기 ‘삼천피’(코스피 지수
3000)를 외치고 있지만, 국내 증시 버팀목 역할을 했
던 ‘동학 개미’가 등을 돌리고 있다. 박스피에 갇힌
시장에 지친 개인투자자의 ‘팔자’를 두고 개미의 ‘항
복 신호’라는 시각도 나온다. 기약 없는 금리 인하 기
대, 국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감,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 도입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
져 개미를 해외로 내몰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기준 연초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13
조8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7조7000억 원어
치를 판 기관 물량의 약 2배에 달한다. 이 기간 외국
인은 22조2000억 원을 샀다.

개인들의 ‘팔자’ 물량은 이달 들어서도 벌써 3조
원을 넘어섰다.

증권사 한 투자 전략팀장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
른 시장보다) 유독 약했다”며 “떡을 것도 혜택(금투
세 폐지)도 없는 시장에서 개인이 버티지 못하며 매
물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
인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
로 부진한 상태다. 한국 코스피는 주요 7개국(G7)과
중국, 인도 등 10개국 지수 가운데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미국 나스닥이 18.9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미국 S&P(15.04%)와 일본 닛케이
225(15.44%), 이탈리아 FTSE MIB(9.44%), 인
도 님프티50(8.2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코스
피는 5.73% 오르는 데 그쳤다.

개미의 변심은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보
니 19일 기준 자산관리계좌(CMA·79조 원), 머니
마켓펀드(MMF·17조 원), 투자자예탁금(55조
원) 등 증시 주위를 맴도는 자금 규모가 350조 원에
이른다. 국내 시장에서 발을 뺀 투자자들은 미국 주
식으로 상당 부분 흘러갔다.

정성욱 기자 sajikoku@·박상인 기자 si2020@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30조-연금자산 30조’ 달성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해외주식과 연금
자산 동반 30조 원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자산이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해 7
월 연금자산이 30조 원을 넘어섰고 해외주식마저
30조 원(14일 기준)을 달성했다.

이는 2021년 ‘20·20클럽’(해외주식 20조 원-연
금자산 20조 원)을 달성한데 이어 3년 만에 50%
넘는 성장세를 보이며 ‘30·30클럽’ 고지를 밟은 것
이다.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잔고는 2017년 1월 1조
원을 시작으로, 2021년 4월 20조 원을 넘긴 이후 지
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올해에만 해외주식은 6
조7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객의 해외

주식 평가이익은 약 5조5000억 원 증가했다.

미래에셋증권 고객들이 상위 보유한 해외주식 종
목(14일 기준)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
트, 애플, 브로드컴 등으로, 해당 종목의 수익률(세
전, 총평가손익/총매입금액)은 엔비디아 192%, 테
슬라 -6.76%, 마이크로소프트 54%, 애플 57%, 브
로드컴 203% 등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 환경의 변화에 맞는 자산배
분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기업 투자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혁
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개인
투자용 국제 단독판매 대행사로 선정돼 높아진 금리
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채권 투자에서도 두각을 나타
내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NH증권 소속 박민지 프로 우승상금 2.2억 전액 기부

NH투자증권은 소속 골프선수 박민지(사진 왼
쪽)가 대회 우승상금 2억2000만 원의 기부를 모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선수는 프로무대 데뷔 이후 후원사와 선수로 관
계를 맺어온 NH투자증권의 농협 계열 공익 재단인
농협재단에 우승상금 중 1억 원을 기탁했다. 농협재
단은 박 선수 요청에 따라 어려운 농가지역에 재원을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선수는 지난 9일 ‘KPGA 2024 셉트리온 링크
마스터대회’에서 우승상금으로 받은 2억1600만 원
전액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
기에 사재를 더해 총 2억2000만 원을 기부 결정했으며
최근 기부처가 정해졌다. 1억 원은 농협재단에, 1억 원
은 고려대 안암병원에 전달했다. 또 우양재단과 고려

(LPGA 최초 단일대회 4연패를 축하함)



대 세종캠퍼스에 각각 1000만 원씩 전달했다.

박 선수는 “프로 데뷔 이후 함께하고 있는 농협의
복지재단에 기탁하게 돼 더 뜻깊게 생각한다”며 “필
요한 곳에 잘 사용되면 기쁘겠다”고 밝혔다.

문석근 농협재단 사무총장은 “농협 소속으로 사회
공헌에 기여해준 것도 고마운데 농협재단으로 기부
를 결정해 주 너무나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농
촌취약 계층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성수4지구 설계안 공개...“77층 여부는 서울시와 지속 협의”

100% 한강조망에 100% 남향
서울시 높이제한에 일단 41층
하반기 규제 완화 후 변경 계획
‘THE 77’ 상표출원 이미 신청

77층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가 설계사 현상공모로 접수한 디에이건축 컨소시엄의 설계안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의 높이 제한으로 최고 높이는 41층으로 설계된 상태인 만큼, 하반기 규제 완화 여부에 77층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성수4지구 조합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중합건축사사무소(디에이건축)-한국중합건축사사무소-켄슬러’ 컨소시엄(디에이건축 컨소시엄)이 현상공모로 접수한 설계안을 공개했다. 조합은 설계안 검토를 거쳐 내달 13일 열리는 정

기총회에서 설계사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설계안에서 디에이건축 컨소시엄은 ‘100% 한강 영구조망’과 ‘100% 남향’ 설계를 내세웠다. 한강과 잠실을 바라보는 가구가 55%, 한강과 서울숲을 바라보는 가구가 45%로 전 가구가 남향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커뮤니티 시설은 강점인 한강 조망을 테마로 차별화를 꾀했다. 10층 높이의 연결브릿지에 위치한 인피니티풀은 한강과 이어지는 물결라인으로 배치해 영동대교를 거쳐 탄천-올림픽스타디움을 내려다보는 다이내믹 뷰 조망이 가능한 ‘핫스팟’을 만들 계획이다. 설계안대로 실현된다면 성수4지구는 한강뷰 인피니티풀을 가진 최초의 주거 건축물이 된다.

성수4지구는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중에서 한강 조망권이 가장 뛰어나다. 조합 역시 이러한 강점을 살려 77층 초고층 개발을 추

성수4지구 재개발 설계안

전 가구 한강 조망	한강·잠실뷰 55%, 한강·서울숲뷰 45% 4개 동 파노라마 한강뷰
스카이라이프 인피니티풀 (10층 높이)	영동대교~탄천~ 올림픽스타디움부
최고 층수 41층, 총 10개동, 약 1579가구	올해 하반기 높이 제한 폐지 이후 77층 추진

※ 출처: 성수4지구 조합, 디에이건축 컨소시엄



진 중이다. 성수동 일대와 비슷하게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최고 56층 높이의 신축통합기획안이 확정된 상태다.

여기에 트리마제, 갤러리아포레, 아크로서울포레스트 등 3.3㎡당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아파트가 사업지 일대에 밀집한 점을 고려한다면, 랜드마크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선 77층 단지 건립이 필요하다는 게 조합 측의 견해다. 올해 2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참여

한 조합원의 약 80%는 77층 초고층에 손을 들어줬다. 최근에는 최고 77층을 뜻하는 ‘THE 77’이란 상표에 대한 특허출원을 신청하는 등 77층이란 상징성을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실제 77층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획 층수다. 성수3지구가 이보다 높은 80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조합장이 공적인 점을 고려하면 4지구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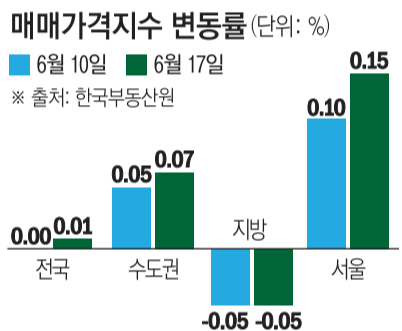
다만 변수는 서울시의 ‘최고 높이’ 룰이다. 성수4지구는 현재 50층 이하(높이 150m)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설계안의 최고 층수는 41층이다. 조합은 빠른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해당 안으로 설계사를 결정한 후, 하반기 높이 제한 폐지 후 77층으로 설계안을 변경해 건축심의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수전략지구를 층수 제한 없이 8210가구로 재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합은 높이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 현재 41층, 10개 동에서 77층 2개 동, 후반부 저층 3개 동으로 바꾼 설계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성수4지구 조합 관계자는 “77층 실현 여부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공인한 가이드에 맞춰 올해 안으로는 구체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아파트값 양극화...서울 13주째 상승, 지방 하락 지속

서울 한 주 새 0.1%→0.15%
전국도 보합서 0.01% 상승으로



전국에서 지역별 아파트값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이번 주 상승 폭을 키우면서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은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하면서 상승세인 수도권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5%포인트(p) 더 오른 0.15%를 기록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는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을 키우면서 강세를 보였다. 서초구는 0.31%, 강남구는 0.16%, 송파구는 0.23%씩 올라 모두 전주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용산구(0.24%)와 성동구(0.35%) 역시 이번 주 상승 폭이 커지면서 지난주에 이어 아파트값 오름세를 유지했다.

노원구(0.05%)와 도봉구

(0.03%) 역시 지난주에 이어 집값 강세를 보였다. 강북구는 지난주 0.04%보다 0.01%p 더 오른 0.05%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0.06%, 경기도는 0.02%로 모두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는 0.07%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 주 보합(0.0%)에서 이번 주 0.01% 상승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05%로 조사돼 약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은 지역별 선호지역·단지 중심으로 간

헐적 상승거래 지속되면서 대체 수요로 인식되는 단지들의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 중”이라며 “매도·매수 희망가격간 격차로 거래는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매수문의 꾸준하게 유지되는 등 상승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5%p 오른 0.17%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57주 연속 올라 매매시장과 함께 강세를 지속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0.13%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은 0.07%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3%) 대비 0.01%p 오른 0.04%로 나타났다. 지방은 지난주보다 0.01%p 상승한 -0.02%로 집계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역세권·신축·대단지 위주로 지속적인 매물 부족현상이 보이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대기 수요가 인근 구축단지로 이전되는 등 지역 내 가격 상승세 확산되며 전체 상승 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스마트모듈러포럼·철강협회·LG전자 등 제조기업 4곳과 LH, 모듈러주택 기술개발 협력 ‘맞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마트모듈러포럼과 한국철강협회, LG전자 및 4개 모듈러 제조기업과 모듈러주택 기술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H와 스마트모듈러포럼, 한국철강협회, LG전자와 주요 모듈러 제조사인 엔알비, 유창이앤씨, 자이가이스트, 플랜엠 등 8개 기관이 모여 고성능·고품질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상호 기술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모듈러주택은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부재의 80% 이상을 사전 제작해 현장에 운반 후 설치하는 주택이다.

협약을 통한 주요 협력 사항은 △모듈러주택 고층화, 제품화, 건물·가전 융복합 등 기술교류 △모듈러주택 설계표준

화, 건축화, 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 협력 △초고층 모듈러주택 기술구현을 위한 국가 R&D 참여협력 △논어촌 모듈러주택 개발 협력 등이다.

LH는 협약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연내 OSC 특성을 반영한 모듈러 표준 설계·평면을 개발하고, 국토부 표준설계도서 인정범위 확대를 추진해 대량 생산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주현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기관과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실증사업과 기술개발을 선도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BS산업, ‘솔라시도’ 주거단지 건축설계 공모

총 4200가구...8월 당선작 선정

보성그룹 계열사 BS산업이 전라남도 와해남군 등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솔라시도(구성지구)’에 리조트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BS산업은 전남 솔라시도 홍보관에서 이번 설계공모에 참가하는 국내 10위권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을 초청해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설계공모는 공동주택 및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의 고급주택 실적을 보유한 전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 이후 다음 달 26일까지 참가업체의 응모작을 평가해 8월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솔라시도 레저·리조트 주택단지에 대한 설계권을 부여한다.

공모 설계 대상은 솔라시도 부지 내 조성하는 약 2000가구 레저 주택단지인 솔



BS산업은 19일 솔라시도 주택단지 설계공모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제공 BS산업

라시도 골프앤빌리지(SGV)와 복합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약 2200가구 리조트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며, 부지 면적은 약 53만㎡다.

레저 주택단지 SGV는 공동주택과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터와 쇼핑센터, 중앙정원 등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며, 리조트 공동주택단지에는 약 19만㎡에 이르는 단지 내 외부공간을 활용 국내 최초 프랙티스골프코스사와파크골프, 수공간놀이시설 등 다양한 야외스포츠커뮤니티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역~남산 사이 양동구역에 35층 빌딩

동소문동2 재개발 계획도 승인

서울 중구 양동구역에 최고 35층 높이의 빌딩이 건립된다. 개방형 녹지 및 지하철 1호선으로 이어지는 지하 연결 통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동구역 내 2개 지구다. 현재 메트로타워(1970년 사용승인), 서울로플라자(1972년 사용승인), 서울로타워

(1985년 사용승인)가 있으며, 입지 여건 및 주변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한양도성으로부터 약 100m 범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으로 고층부를 배치한다. 건축물 외부에는 대규모 녹지·시민휴게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퇴계로변에서 통경축 및 문화재 주변 조망권 등이 확보될 예정이다.

건축 계획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35층 이하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층까지는 개방형 녹지 및 지하 연결 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건축물 투시도. 사진제공 서울시

성화를 유도한다.

이날 도제위원에선 성북구 동소문동 2가 33번지 일대 ‘동소문 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한진리 기자 truth@



IBK기업은행

글로벌 금융전문지 선정
대한민국 중소기업금융 최우수 은행 賞 3관왕 수상

ASIAMONEY
Best Bank For SMEs South Korea
아시아머니 선정, 중소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

Global Finance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글로벌파이낸스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The Asian Banker
Best SME Bank in South Korea
아시아뱅크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 중소기업 전문은행

세계, IBK기업은행에 집중하다

변화를 이끄는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한류는 글로벌 문화 커뮤니티... 학문적 연구 대상 돼야”

“한류는 다른 많은 다문화적 현상 중에 특색있고,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됐다.”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이 20일(현지시간)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제74회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한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요즘 뜨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 콘퍼런스 개최사를 맡아 한류의 의미를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한류가 시작할 때, 일시적인 문화 현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문화 커뮤니티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많은 연구자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류를 학문적으로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은 한류 연구 거장인 헨리 젠킨스(미국 남캘리포니아

호주서 ‘한류 콘퍼런스’ 열려

박종민 언론학회장 개최사 맡아 팬덤·문화 교류 등 열띤 토론 ‘K드라마’ 외교 역할 주제 눈길 “세계인들의 관심 확인한 자리”

대) 교수가 맡았다. 그는 ‘동아시아의 초문화적 팬덤 연구: 상상의 조국, 의상적 팬덤, 팬 민족주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젠킨스 교수는 한류가 국경을 초월한 팬 상호작용의 복잡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류가 글로벌 미디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젠킨스 교수의 기조연설 이후에는 한류의 문화적 표현, 한류 산업 기반, 한류와



20일(현지시간)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제74회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한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요즘 뜨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영역’ 콘퍼런스가 진행됐다. 개최사를 맡은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은 참석자들이 콘퍼런스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문화외교 등을 주제로 다채로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홍경수 아주대 교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담긴 철학적 논의를 발표하면서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에 도전하고, 더 넓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이

드라마가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 도구로서의 K드라마의 역할을 분석하는 세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세션에서는 K드라마가 문화 외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실제로 2014년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은 서울대 글로벌공학센터에서 진행된 강연에서 “‘별에서 온 그대’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큰 유행”이라며 K드라마를 언급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부인 평리위안 여사 역시 “남편의 젊었던 시절 사진을 보며 ‘별그대’ 주인공도 민준과 똑같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하는 등 K드라마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K드라마가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데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한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논의됐다.

박 회장은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한류를 단순히 재미와 오락으로 소비하는 데에서 벗어나 한류의 근간을 분석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우리 연구자들의 몫이다. 앞으로 이 같은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석주 기자 ssp@

“의대 총장 ‘끝장 토론’ 제안 적극 수용”

이주호 부총리, 기자간담회서 밝혀 “대법 판결, 호전되는 계기 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끝장 토론’에 대해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신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법원 판결도 상당히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의대 37곳 대학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 (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로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끝장토론을 포함해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홍 총장이 카데바(시신) 등 시설과 장비가 부족한 경우 지역거점센터 등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들었다”면서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의견 수렴 중이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집단 유급 데드라인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칙에 따라 데드라인이다 다른 것 같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40개 의대의 각기 다른 상황에 맞춰서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유정 기자 oiljung@



경찰 출석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전공의 집단행동 중용 혐의를 받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백색실선 침범 사고여도... 대법 “특례법 처벌 불가”

차선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운전자일지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중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선 간 이동이 금지된 백색실선을 넘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다.

당시 2차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고, 그 과정

에서 택시에 탄 10대 승객이 전치 2주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일시

“흔히 일어나는 교통현실 반영 진로변경으로 과잉 처벌 무리”

2004년 기존 판례 뒤집어

정지’ 등을 의미할 뿐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A씨의 행동이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백색실선 역시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통행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안전표지’와는 법률상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지선 등 백색실선이 흔하게 존재하는 우리 도로의 상황, 혼잡한 도로 여건에서 백색실선을 넘어다닐 수밖에 없는 교통현실을 고려할 때 백색실선 진로변경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보는 건 과잉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미 교량·터널 등에서는 백색실선을 넘어야지르기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의 청색실선은 백색실선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이 이를 넘어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례 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박꽃 기자 pgot@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 오늘 1심 선고

SK이노, 노소영 관장 상대로 소송 ‘이혼소송 변이판’ 결론에 쏠린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산인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가 나온 지 20여 일 만으로, 이번 퇴거 소송은 이혼 소송의 변이판 격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SK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있는 미술관이다. 과거 최 회장 모친이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노 관장이 이어받아 2000년 12월부터 이름을 아트센터 나비로 바꾸면서 현 위치에 자리잡아 지금까지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리모델링을 이유

로 아트센터 나비와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다고 통보했고, 그럼에도 아트센터 나비 측이 퇴거하지 않고 공간을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SK 측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대표이사이자 그룹 총수인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 회장의 모친으로부터 승계한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꽃 기자 pgot@

‘디스플레이 전문 교육’ 국내 유일… “흥미 있어야 유리”



④ 경희대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구동·회로 특화… 교육부 첨단학과 선정
반도체 공정 이용한 나노전자층도 제작
국가간 경쟁 심화로 우수인재 양성 부각
총 12명 전임교수도 최대 4명 증원 계획

“디스플레이 구동이나 회로를 집약·특화해 전문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유일 학과로 알고 있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12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 이과대학에서 진행된 반도체 공정기술 수업에서 만난 3학년 한주현 씨는 정보디스플레이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은 반도체 제조공정을 이용해 나노전자층을 제작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던 박규창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교수는 “반도체 제조 주용 공정인 박막성장, 포토리소그래피, 박막 에칭 공정을 실험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통합해 나노전자원 제작 및 극자외선 광원 및 미세홀(실리콘관통전극 응용) 가공 기술을 실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는 최근 교육부의 첨단학과로 선정돼 내년부터 학부제인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민성욱 정보디스플레이학과장은 “국가간 첨단분야 경쟁 심화로 관련분야 우수인재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부도 대학이 급변하는 산업계 현황에 대응할 수 있게 첨단분야 정원 조정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경희대는 미래정보디스플레이 학부를 신설해 관련 분야 정원을 55명에서 88명으로 조정·증원했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 학과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임교수 또한 늘어난다. 현재까지 총 12명의 전임교수가 있는데 교수진 구성도 지금보다 최대 4명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경쟁률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네오르네상스전형) 경쟁률은 △8.69대 1(2022년) △13.00대 1(2023년) △19.43대 1(2024년)을 기록했다.

학교 측은 수험생들에게 디스플레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성적’만을 위한 대입을 준비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민 학과장은 “자체 성적보다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해당 과목을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예컨대, 나는 물리과목에 흥미가 있지만, 성적은 지구과학이 잘 나오니까 지구과학을 선택할 거다’ 보단 ‘물리가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흥미가 있으니 물리2까지 배워볼 것’이라고 보여주는 학생이 선발에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들어온 3학년 김재환 씨는 고등학교 때 융합과학 동아리를 흥미 있게 활동한 것이 학과 지원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고교 때 융합과학 동아리에서 코딩과 인공지능 관련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물인식을 하는 활동을 흥미를 갖고 관심 있게 했었는데 합격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학생들이 수업과 실습을 받는 이과대학 건물. 내년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학생들도 이과대학 건물에서 수업과 실습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 경희대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최근 교육부의 첨단학과로 선정돼 내년부터 학부제인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사진은 반도체공정기술 수업의 실습 모습. 오른쪽 위 사진은 민성욱(사진 오른쪽)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장과 김정호(왼쪽 두 번째) 교수가 설계 실습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경희대



“이론과 실습… 세계수준 학부 최고의 ‘차세대 인재’ 양성 학생 전공 선택권도 넓어져”



민성욱(왼쪽) 경희대학교 정보디스플레이학과장은 “학부제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교수는 “학부 내 교육과정은 ‘소재·발광소자 학 전공’과 ‘구동소자·시스템학 전공’ 등 두 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경희대

내년 신설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는

민성욱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장은 12일 본지와의 만남에서 “전 세계 학부 수준 과정에서 디스플레이를 교육하는 것은 경희대학교가 최초”라고 강조했다.

경희대가 내년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를 신설해 88명의 학생을 모집한다. 2004년 개설된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와 교육과정이 새롭게 태어난다. 학부 교육과정의 신설로 2025학년도부터 해당 학생들은 기존보다 더 폭넓은 전공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학생 수도 기존 55명에서 88명으로 조정·증원된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20년 동안 800여명의 학부 졸업생과 425명의 석·박사를 배출했다.

민 학과장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며 관련 분야 발전을 이끌었다”면서 “학과 개설 때부터 디스플레이 학문의 특성에 맞춰 물리와 화학·재료,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로 학과를 구성하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본적 이론과 실전적 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학부제로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은

학생 수 55명서 88명으로 조정·증원
유기소재·소자 등 다양한 교과목 개설
학생 적성·흥미에 맞는 전공 탐색 가능
해외전공 연수 등으로 문제해결력 키워

넓어질 전망이다. 학부제는 1990년대 초반, 학문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학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 선택의 여유 시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부제 아래서 전공 탐색을 하고 여러 요인을 고려해 전공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함께 만난 김정호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교수는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교육과정은 융합학문인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반영해 구성됐다”면서 “1·2학년은 세부 전공 구분 없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해와 분석의 기반인 물리, 화학, 전자공학 분야의 전공기초와 전공기반 교과목을 공통으로 이수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세부 전공 분야를 탐색할 수 있게 구성했고,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에 세부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심화된 교육을 받는다”고 설명

했다. 이어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는 ‘세계 최고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존의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소자·공정·시스템 분야의 설계와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학부 내에 ‘소재·발광소자학 전공’과 ‘구동소자·시스템학 전공’ 등 두 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는 △유기소재·발광소자 △무기소재·발광소자 △공정 및 장비 △TFT 및 구동소자 △구동회로·시스템 △광학 및 AR·VR 등의 핵심 교육영역을 설정해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보디스플레이학과 개설 과목수도 49개에서 68개로 늘어난다.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최신 기술과 연구개발 동향을 반영해 과목도 변경한다.

민 학과장은 “세부전공에서는 공통과정으로 산업체 강의, 해외전공연수, 프로젝트기반 학습 교과목을 준비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기르게 도움 예정”이라며 “세부전공이 연계된 마이크로그리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 ‘톱5’ 도약 이끌 것”

법무법인(유한) 동인

황윤구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적극적인 조직 강화 일환으로 저희 법인과 비슷한 규모의 법무법인들과 ‘빅딜(대형 합병)’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도덕성이 검증된 로펌들과 합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법무법인(유) 동인은 2004년 설립 이래 10년 만에 변호사 100명 이상 규모로 커져 짧은 기간 급성장한 경험을 갖춘 법인이다. 이후 다시 10년이 경과한 2024년 현재 변호사 수 220명 정도로 외형을 확장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올해 ‘400명 넘는 변호사를 거느린 초대형 로펌’으로 재도약할 발판 마련에 고심 중이다. 황 대표 변호사는 이날 “회사 간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는 회계 통합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업무협약을 맺어 ‘브랜드 제휴’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합병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마다 변호사와 임·직원 보수체계, 수입료, 복지·승진·근속 등에 관한 규정들이 서로 다르다. 때문에 구성원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까지 상당한 시일에 걸친 신중한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합병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브랜드 제휴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대표 변호사는 “브랜드 제휴는 외부에서 봤을 때 하나의 로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지하도로 벽화 고안... ‘남다른 기획력’ 기대

그는 지난달 초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에 취임한 뒤 줄곧 동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법무법인 시스템 개선 키워드로 △사건 발굴 기획 △홍보 △합병 및 자문팀 보강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황 대표는 “로펌 순위 5위권 밖 법인들은 송무(訟務) 성공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대기업이 주 고객이 되는 확률은 낮다”며 “5위권 내 로펌들이 주 담당하는 사건별로 서브(Sub) 로펌으로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실정에서는 장기적으로 합병 등을 활용해 법인 브랜드 가치를 높여 대기업에서 고가선 임비를 지급하더라도 믿고 맡기는 로펌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매출 증대를 위한 소송의 기획 발굴 등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기획’이란 시사적 사건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집단소송뿐 아니라 관련 사례까지 확인해 유사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뜻한다. 동인은 사건기획위원회를 신설한 상태다. 황 대표는 “기획은 언론 보도는 물론 정기적으로 판례를 분석해서 피해 사례들을 찾아내야 한다”며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유사 사례의 ‘숨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일에서 공익차원 성격이 크다”고 했다.

황 대표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한 2014년 관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생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구속 수감자가 검찰 청사에서 재판정으로 이동하는 법원 지하 통로에 벽화를 그려 피고인 참회를 이끌어내는 등 법원 내부에서 기획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아울러 동인은 법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인이 수임해 성공한 사건들 가운데 국민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케이스를 미리 선별, 판결 선고 당일 언론사에 개요 소개 및 승소 판결의 사회적 의미 등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동인은 법무법인들 사이에선 실시된 적 없는 ‘전문 대변인단’을 꾸린다. 황 대표 변호사는 “주대변인은 법원 부장판사급 출신이 많아 전문가 입장에서



황윤구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황윤구 총괄 대표는

△1961년 7월 강원도 속초 출생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9기) △200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1년 대구고등법원 판사 △2003년 대구지법 판사 △2004년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 △2005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06년 춘천지법 수석 부장판사 △2007년 수원지법 부장판사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2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2014년 서울서부지법 수석 부장판사 △2015년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24년~ 법무법인(유)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

민사 항소심 ‘판결 뒤집기’ 전문가 황 대표 ‘전략적 협업 시스템’ 밑바탕 송소율 견인

창립 20주년 초대형 로펌 발판 마련 고심 브랜드 제휴·회계통합 등 단계적 합병 구상

업계 첫 ‘전문 대변인단’ 신설 신뢰 향상 ‘사건 발굴기획·홍보·합병’ 발전방향 제시

정확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저희 로펌 사건이 아니더라도 시사적 사건이 생기면 언론에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경우 적극 대응해 신뢰도 높은 전문 인터뷰를 제공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상위 송무 실적... 로펌 간 업무 결합

동인은 10년 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던 상황에서 벗어나 법원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보강되면서 지금은 송무에서 최상위권 실적을 내고 있다. 주로 민사 항소사건을 처리한 황 대표 역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항소심에서 뒤집는 사례들이 매

우 많은 변호사로 유명하다.

송소율을 끌어올린 비결은 각 사건에서 최고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구성원들이 수시로 개별 팀을 구성·협력하는 ‘송소 전략 협업 시스템’에 있다. 황 대표는 “전관들이 다수인 관계로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 분야와 더불어 자문 부분을 강화하고자 전문 자문팀을 최대한 영입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자문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중견 고정 고객들을 관리해오던 자문팀들은 송무팀이 강력한 로펌과 연합이나 합병을 결국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인이 자문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합병이 아니더라도 프로들 간 업무 결합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간 동인은 헌법재판관 출신의 서기석(연수원 11기) 변호사를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11기) 변호사, 권익위 부위원장 출신 이진리(16기) 변호사, 법무부 차관 출신 정진호(9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진권(9기) 변호사, 해양경찰청장을 거친 이승재(14기) 변호사 등 장·차관급 주요 인재 스카우트에 공을 들여왔다.

황 대표는 “목표를 정하면 다들 솔선수범 역할을 나눠 소기 성과를 얻도록 힘을 보태는 참여와 협조는 다른 로펌에 없는 독특한 장점이다”라고 자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법무법인(유) 동인 ‘전담팀제 고도화’

전담분야 70개 이상 법률문제 신속 대응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고객 요구에 맞춰 기존 △형사 △송무(訟務) △금융 △건설·부동산 등 4개 그룹에서 70개 이상 세분화된 ‘전담팀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팀당 변호사 5~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복잡해진 법률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한 법인 운영상 전략이다.

올해 4월 말 새로 선출된 황윤구(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유한) 동인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 내내 고도화하는 동인의 전담팀 제도에 관한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최근 출범한 경찰팀은 검찰 수사관을 지낸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와 경찰 출신 박기두(변시2회)·곽재현(12회) 변호사로 구성됐다. 실무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팀 구성원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국정농단’, ‘강남 대형클럽 게이트’, 이른바 ‘백남기 사망 사건’으로 불린 살수차에 의한 시위대 사망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임하며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

기획사와 소속연예인 간 분쟁, 연예인 형사사건에 대한 송무 등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엔터테인먼트팀도 창설했다. 이동국(연수원 28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이현영(29기)·서법석(36기) 변호사가 주축인 엔터테인먼트팀에는 ‘7번방의 선물’, ‘킹콩을

경찰·엔터테인먼트팀 등 창설 실무 기반 맞춤형 법률 서비스

들다’ 영화와 방송·음반 등을 제작한 이상훈 고문이 합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로만 채워진 가족법센터 역시 주목받고 있다. 가족법센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를 역임한 홍창우(27기)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현영 변호사는 2006~2009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친자 등 가사소송과 재산분할, 후견, 입양 문제를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을 담당했다.

김진욱(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전문법관으로 일했다. 같은 법원 부장판사로 △이혼 △친자관계소송 △재산분할 등을 두루 겪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입양 사건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은정(33기)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12년 동안 근속한 가사사건 베테랑이다. 이 변호사는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사건·가사항소 및 항고·보호사건, 조정 재판 등을 주도하면서 판사들 실무지침서 ‘실무제요’를 집필한 실력자다.

이 외에 동인 전담팀은 △법무전략팀 △환경·안전·지적재산권(Environment·Security·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SI)팀 △법제 컨설팅 △디지털 포렌식팀 등 70여 개 팀이 각 분야에서 고객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인의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30년 업력, 나로 살고

56년 인생, 나를 쓴다

낮의, 변호사... 밤의, 소설가

인공지능(AI)이 음악도 만들고, 그림도 그린다. 인간 고유의 재능으로 여겨졌던 '창작'이라는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다. AI가 더욱 고도화될 거라는 건 정해진 미래다. 사람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가' 고민할 때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변호사가 있다. 아니, 그는 소설가다.

법조인으로 접한 술한 경험들
각본가·선거캠프 실장·칼럼니스트
다재다능 '올라운드' 밀거름으로
인간 영역 잠식하고 있는 AI 소재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 집필
출퇴근길서 떠오른 생각 스토리로 설계
소설 속 직업 변호사 '체득의 결괴물'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는 "AI와 공동 집필에 몰두했던 소설가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한 작가는 이 책을 읽고 '저자의 상징적 죽음'이라는 평을 내놨다. AI의 발달로 인간 고유의 영역을 빼앗기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위태로운 저자의 지위'와 '왜 창작하는가' 같은 뿌리에 가까운 질문이 담겨 있다. 저자 조광희 변호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됐을까?

영화에서 소설까지 '올라운드'

법무법인 원에서 근무하는 조광희(56) 변호사는 '올라운드'라 불린다. 올라운더는 스포츠 등에서 모든 역할을 골고루 하는 선수를 가리키는 말로 다재다능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이 별명이 이해가 된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영화사 봄의 대표 이사를 지내며 '밤과 낮', '해변의 여인', '멋진 하루' 등을 제작했다.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세 차례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씨네21', '한겨레', '경향신문'의 칼럼니스트로 글을 썼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2003년에는 영화인들의 필독서로 유명한 '영화인들을 위한 법률가이드'를 펴냈다. 이후 '그래봐야 인생, 그래도 인생' 산문집 한 권과 '리셋', '인간의 법정', '밤의, 소설가'까지 세 권의 소설을 냈다. 이뿐인가. 소설 '인간의 법정'은 뮤지컬로도 제작됐는데, 조 변호사는 이 뮤지컬의 각본까지 맡아 각본가로도 데뷔했다.

"변호사 일은 30년째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를 주로 합니다. '평판 관리'라고 하는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분야도 담당하고요." 이 정도 이력이면 작가로 전업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 변호사는 변호사로 오래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 전업 작가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웃음) 두 번째로 변호사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일이 결국 소설의 토양이 됩니

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버스에서 설계하는 소설

조광희 변호사는 뮤지컬 각본 작업도 소설 집필도 변호사 일을 하며 병행했다. 무척 바쁜 일상이었을 텐데 어떻게 일의 균형을 잡았을까? 작품들이 그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은 소설을 쓰는 그의 방식과도 관련 있었다. 조 변호사는 '필 쫓히는' 대로 써 내려가면서 수정을 거듭하기보다, 처음부터 구조를 짜입새 있게 구성한 뒤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 소설을 설계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시놉시스를 쓰고 트리트먼트를 만든다. 소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 변호사는 영화에서 쓰는 개념을 가져와 설명했다.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 역시 산책하다가 휴대폰에 메모하거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작성하는 방식으로 채워나간다.

"시놉시스는 한 페이지 정도의 줄거리를 쓰는 일이에요. 인물과 사건을 그럴듯한 구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 페이지지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시놉시스가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20~30장짜리 트리트먼트를 씁니다. 좀 더 자세한 줄거리죠. 인물이나 사건 설명이 더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저는 트리트먼트 작업을 할 때 챗터를 나누어서 써요. 트리트먼트가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여기까지 완성되면 이제 조금은 기계적인 작업이 됩니다. 살을 붙이는 과정이죠. 이때는 책상에 딱 붙어 앉아 쓰는데, 주로 집에서 하지만 자주가는 카페도 있고, 어떤 때는 2~3일 정도 여행을 떠나 작업하기도 합니다."

소설을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건 꽤나 논리적인 작업이다. 변호사라는 그의 직업적 특성이 소설 쓰기에도 반영된 듯한 방식이다. 하지만 '밤의, 소설가'는 기존과는 좀 다르게 완성됐다. 처음에는 한 문예지에서 작품 요청을 받아 쓰게 됐는데, AI는 비서 역할로만 등장시킬 생각이었다. 그런데 작품을 완성한 후 문우들과 대화하다가 생각이 확장됐다.

변호사 조광희



"발상의 전환이 되면서 '소설 쓰기에 관한 소설'이라는 주제까지 다루게 됐어요. 소설 속에 소설 집필 과정 자체를 노출시키는 일종의 메타 소설이 된 셈인데요. AI에게 창작의 영토를 빼앗기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소설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면 소설이라는 장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왜 사는가에 대한 고찰

AI '레비'와 함께 소설을 써 내려가던 소설가 건우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조광희 변호사가 작품을 통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을 만나게 된다. '저자의 위태로움'이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지만, 동시에 '대중과 시장이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

"요즘 사람들은 고전문학을 잘 안 읽잖

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쓰면 달콤한 글만 쓰게 되죠. 저자라는 지위 자체가 위태롭다고 보는 지점이예요. 그걸 AI가 가속화하는 거죠. 심지어 AI와 소설 쓰기를 경쟁합니다. 나보다 더 글을 잘 쓰는 AI라니, 그렇다면 저자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차라리 AI에 기대는 노예가 될까 고민도 하게 되고요."

별써 AI는 단순노동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변호사 업무에도 쓰이니 말이다. 조광희 변호사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만 해도 판례가 전산화되지 않아 법원도서관에서 종이 파일을 뒤져야 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판례를 검색할 수 있고 AI에게 말하면 대신 검색해줄 수 있는 지경에 가까워지고 있다. 실제로 AI가 영문 계약서를 번역해주는 일은 제법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소설 속 소설가는 AI와 소설 쓰기에 관해 경쟁하지만 현실에서는 변호사가 AI와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소송 기록을 주면 논점이 뭔지 분석해내는 것까지 AI가 해낼 거예요. 그렇다면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재판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법정에서 증인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 아닌가 등의 인간적이고 섬세한 일에 집중하는 형태로 바뀔 거라 봅니다. '일'이라는 영역에 AI가 계속 침식해 들어오니까요. 결국 인간은 어떤 일을 도대체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작품으로 녹아드는 삶

조광희 변호사의 이런 고찰과 경험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첫 소설 '리셋'은 주인공인 변호사 강동호가 현직 서울시장의 의뢰를 받아 미스터리한 정치적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린 내용이다. 돈과 권력, 그것을 쫓는 정치 세력 간의 블랙 커넥션을 파헤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경험도움이 됐을 테다.

두 번째 소설 '인간의 법정'은 주인공 살해한 AI '아오'가 재판을 받는 이야기다. AI와 인간의 관계, 생명과 소수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제시한다. 이 책이 뮤지컬로 탄생한 것은 뮤지컬 '그날들'을 작업했던 장소영 음악감독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무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영화 각본처럼 썼고, 장 감독의 도움으로 극에 맞춰 수정을 거듭해 완성할 수 있었다. 젊은 시절 시를 습작했던 경험이 아리아 가사를 쓰는 데 도움이 됐고, 영화사 대표로 일하며 수많은 영화 시나리오를 본 것이 체득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도 반영됐다.

세 번째 소설 '밤의, 소설가'는 두 번째 소설을 쓰면서 AI에 대해 많은 자료를 찾아봤던 것이 도움이 됐다. 어느 정도 AI에 대해 학습되어 있었기에 이야기를 확대해갈 수 있었다. 차기작으로 준비 중인 소설 '도시의 은자'는 대중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자신은 정작 숨어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계획이다. 소설뿐 아니라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다. 영화감독인 동료 변호사와 함께 드라마 기획을 완성하고 대본을 쓰고 있다. '올라운드'의 면모가 돋보이는 행보다.

차기작에도 역시 변호사가 나올 것 같다. 그는 "꼭 변호사를 등장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지만, 경험과 인생관을 녹인 캐릭터를 고민한다면 "변호사가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다"며 웃었다. 어쩌면 '변호사'라는 등장인물이 그의 상징이 될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들었다. 소설 쓰는 변호사 조광희가 있고, 그 소설 속에서 변호사이면서 뮤지컬을 만드는 인물이 있고, 소설 속에서 만들어지는 뮤지컬에서 변호사를 연기하는 배우가 있을 것만 같다. 마치 '밤의, 소설가' 작가의 말에 그가 남긴 말처럼.

여기 '밤의, 소설가'를 쓰는 조광희가 있다. 소설 '밤의, 소설가'에도 소설을 쓰고 있는 남자가 있다. 그 남자가 쓰는 소설 속에서 '먼저 상상하고 나중에 움직이다'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여자도 있다. 소설 '먼저 상상하고 나중에 움직이다'에서도 주인공 여자가 소설을 쓰고 있을 것이다.

글/이연지 기자 yeonji@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당신의 자산관리 마주하면 전망 좋은 노후가 보입니다

연금에서 신탁까지
1:1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으로
당신의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세요

“연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지?”

“애써모은 재산,
어떻게 물려주지?”



신한 연금라운지 & 신한 신탁라운지

- 평생소득 컨설팅 : 1:1 맞춤형 통합연금관리 및 노후 자산 설계
- 평생소득 아카데미 : 금융 세미나, 원데이 클래스, 재취업 교육
- 평생소득 심화 상담 : 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개인 연금

신한 연금라운지 노원: 노원역 5번출구 신한은행 3층, 02-6224-5498
신한 연금라운지 일산: 주엽역 5번출구 신한은행 4층, 031-812-3654

- One-Stop Consulting : 신탁을 기반으로 한 종합자산 컨설팅 (신탁, 법률, 세무, 부동산 등)
- 다양한 Solution :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기부신탁, 후견신탁 등

위치 : 대한서울상공회의소 9F (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상담전화번호 : 02-2151-1995, 1996 / 상담전용메일 : slifecare@shinh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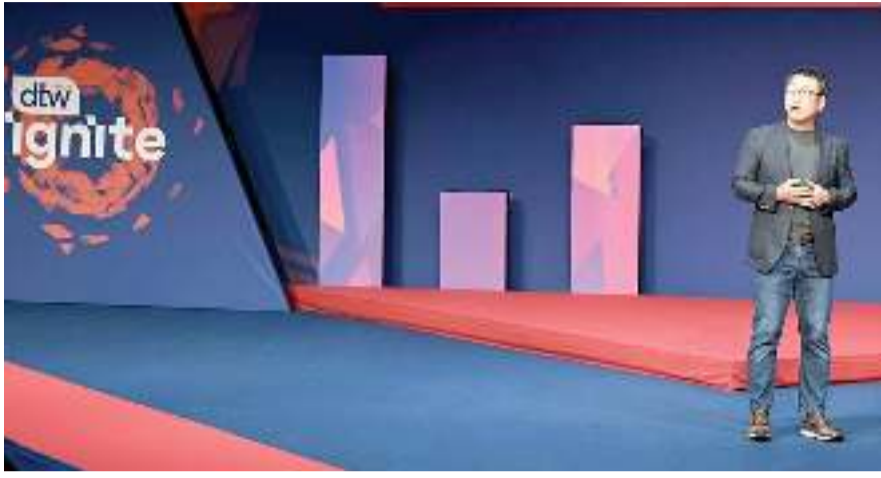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전용 상담센터 1833-3327(평일 9-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4-01903호(2024.05.16~2026.05.15) 준법감시인 심사번호 제 2024-12225-1호(2024.05.14~2026.05.12)

“글로벌 통신동맹 GTAA 확장... AI 파괴적 혁신”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2차 라운드테이블 오프닝스피치
5개국 통신기업 연합체 주도
통신사 특화 LLM 공동 개발
“글로벌 AI 선도 게임체인저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18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를 확장하기 위해 110국 800여 통신사-테크 기업이 모인 글로벌 포럼에서 '인공지능(AI) 세일즈'에 나섰다. SKT는 18일(현지 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글로벌 통신·기술 연합체인 TM포럼에서 '2차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에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 창립총회에 이은 후속 행보다. GTAA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주도해 출범한 통신사 연합체다. 독일 도이체텔레콤, UAE(아랍에미리트) 이엔 그룹, 싱가포르 싱텔그룹, 일본 소프트뱅크까지 5사가 함께 하고 있다. 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과 AI

관련 사업을 함께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이날 GTAA 멤버 5사와 그 외 통신·테크 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모인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통신사의 AI 협력이 가져 올 통신 분야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얼라이언스의 공동된 목표는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함께해 궁극적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AI 혁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AI 개인비서 같은 파괴적 혁신을 함께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통신사들이 기술·역량을 모을수록 혁신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GTAA가 통신사들의 AI 도입과 사업 모델 혁신을 가속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등 지금껏 없던 새로운 AI 혁신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는 일상 생활의 혁신을 도모하고 산업 전반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 또한 수반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협력해 안전한 AI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에 동참하고 동시에 지속가능

한 AI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 대표는 오프닝 스피치 이후 정석근 SKT 글로벌·AI테크사업부장을 비롯해 도이체텔레콤 안 호프만 AI 기술센터장, 이엔의 해리스 링 그룹 전략최고책임자, 싱텔의 윌리엄 우 그룹정보기술최고책임자 등이 함께 무대에 올라 통신사의 AI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행사 이튿날에는 GTAA 5사 주요 경영진들이 한 데 모여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월 MWC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번에 본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올해 안에 설립될 합작 법인은 통신사 특화 LLM(거대언어모델) 공동 개발과 상품화, LLM의 다국어 언어 학습과 성능 고도화, AI 개인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앞으로도 국내외의 AI 플레이어들과 함께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며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속적인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AI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교총 회장에 박정현 부원여중 교사 역대 최연소... 두번째 중등 평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39대 회장에 박정현(사진)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박정현 회장은 1980년생으로 교총 역사상 최연소 회장이며, 이원희 33대 교총 회장에 이은 두 번째 중등 평교사 출신 회장이다. 박정현 회장은 지난 13~19일 실시된 온라인 투표 개표 결과 총투표의 38.08%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박정현 회장은 올해로 21년차 현직 교사다. 동국대 국어교육과 학·석사를 졸업하고 관교여중, 인천국제고, 만수북중에서 근무했다. 인천교총 대변인, 한국교총 정책교섭위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교육부 교육정책지원위원, 교육부 개정교육과정심의위원, 교원교육학회 교원단체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인사

-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박찬용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재훈
-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승진 △미디어 혁신지원과장 김중우
-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제협력처장 김소영 △행정부장 박성대 △발전협력팀장 이창준 △건설팀장 박규훈 △KAIST 클리닉 운영팀장 손선권 △연구정책전략팀장 최배진 △일반연구지원팀장 양시정 △기술기초출원 기획운영팀장 박희서 △KAIST 우주연구원 팀장 제성애
-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사장 전보 △경영관리처장 신현호 △사업개발처장 민정식 △미래사업처장 강진 △통합운영처장 엄태선 △건설처장 정남성 △동탄지사장 하영민 △플랜트기술처 고장정지예방 TF 총괄역 오세민 ◇부사장 신규 보직부 △삼승지사장 김규중 △평택지사장 김계희 ◇부장 전보 △건설처 건설관리부장 최인수 △열수송처 열수송공사부장 권성주 △중앙지사 고객지원부장 김갑철 △공무2부장 전영재 △열수송2부장 김진태 △파주지사 기계부장 엄재식 △삼승지사 전기영업부장 담자룡 △배전부장 김상관 △고양사업소 고객지원부장 전홍식 △공무부장 김진태 △운영부장 박병규 △판교지사 고객지원부장 윤종원 △판교지사 고객지원부장 이창형 △북한운영부장 김재공 △용인지사 운영부장 김승민 △평택지사 공무부장 홍정환 △세종지사 운영부장 김영진 △파주지사 고객지원부장 허충휘 △양산지사 계전부장 전대훈

부음

- ▲김동열 씨 별세, 이영민 씨 남편상, 김홍자-온갑(삼우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은미 씨 부친상, 임일태-김성우 씨 장인상, 류경희 씨 시부상 = 2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5시 20분, 장지 국립묘지 산호국원, 02-2227-7500
- ▲염태환(전 경희대 한의대 부속 시내한방병원장) 씨 별세, 이진영 씨 남편상, 염지숙-종원-종훈-종석-이정 씨 부친상, 임영미-김명희-시정민 씨 시부상, 박수영-박성희 씨 장인상 = 19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30분, 031-775-4444
- ▲한명수(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씨 별세, 신동완 씨 남편상, 한상희(뉴스1 정치부 기자)-상윤(홍익대 박물관 학예사) 씨 부친상, 박승열(현대건설 경영기획실 매니저) 씨 장인상 = 1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2일, 02-2558-5940

“옥외광고 천국, 美 타임스스퀘어급 ‘명동’ 만들 것”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취임 2주년 간담회... “남산고도제한 완화 성과”

“30년 주민 숙원이었던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신당10구역 등재개발 신속추진을 통해 도시의 큰 틀을 재정립했습니다.” 김길성(사진) 중구청장은 19일 서울 중구 필동라비투스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구는 도심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얽매어 노후화됐다”라며 “거주민의 삶과 도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규제 완화와 도심 재정비에 집중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구는 서울시의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이달 말 최종 결정 고시를 내리게 되면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고도지구 재정비 안에 따르면 현재 12m,

20m 높이까지 규제를 적용받던 중구 내 5개 동(회현동·명동·장충동·필동·다산동)의 높이 제한이 지역별로 16~40m까지 완화된다. 또한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의 지역에도 1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고자 남산 고도제한 완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아카데미 등을 열고 모든 사업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주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모든 과정을 낱알이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대표 관광지인 명동에 자유롭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의 타임스스퀘어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로 명동 일대를 ‘명동스퀘어’로 명명

했다. 광고물의 모양과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 해당 구역은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커딜리 광장,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과 같이 화려한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는 2016년 강남 코엑스 일대 자유표시구역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후 지난해 말 서울 명동과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가 추가로 선정됐다. ‘명동스퀘어’에는 올해 11월께 신세계백화점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하나은행-롯데백화점·교원빌딩 등 주변 건물에 전광판이 설치된다. 김 구청장은 “미국의 타임스스퀘어에서 전광판은 독특한 콘텐츠로 작동하고 있다”라며 “중구는 대형 건물에 옥외광고물 한두 개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전광판을 새로운 ‘매체’로 발전시키려 한다”



고 전했다. 이어 “대형 전광판 16개에서 동시에 같은 영상이 나오거나 16개의 영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장면을 상상해달라”라며 “‘명동 스퀘어’의 경제적·문화적 파급 효과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다시 세계로 퍼지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사진제공 서울 중구청

삼바 노사 공동 ‘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 선포

“톱티어 도약... 조직문화 혁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30 글로벌 톱티어(Top-Tier) 바이오 회사’로 도약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조직문화 선포식을 열고 일·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존중·소통·변화’를 실천해 글로벌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사가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논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Way) 선포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첫걸음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회관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회사 생활의 의미와 가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논림(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직원 대표들은 20일 조직문화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사가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Way)’에는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과 존중·소통·변화로 일의 품격을 높여 생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겼다. 회사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3개월간 운영하고,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 의견을 객관적으로

청취해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사명감·존중·소통·변화·글로벌을 주요 키워드로 수립한 행동 원칙 및 실행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지키기(Back to Basic)’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imfactor@

박세리, 밴플리트상 공동 수상 “스포츠 통해 한·미 유대 강화”

골프계의 거장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한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받는다. 밴 플리트상은 1992년부터 매년 한미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미 친선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는 19일(현지시간) 밴 플리트상의 올해 수상자로 박 이사장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포츠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유대 강화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운수 휠라홀딩스 회장이 먼저 수상자로 선정됐지만, 박 이사장이 추가 선정돼 2024년 밴 플리트상의 공동 수상자가 됐다. 시상식은 9월 30일 미국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이나영 기자 2or0@

문학의 숲



이순원 소설가

직업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15년 전 고향 강릉에 가서 그곳에 '바우길'이라는 이름으로 걷는 길 탐사를 한 적이 있다. 그건 애초 내 인생에서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25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과 함께 대관령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옛길을 굽이굽이 걸어서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소설을 쓴 적이 있었다. 그 작품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차례대로 실린 다음 고향에 그런 걷는 길을 개척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피한 일을 끝내 나서게 된 것 역시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다.

고향을 무대로 소설을 쓰는 것도 한 작가로서 고향을 사랑하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글만 쓰면 일반 사람이 느끼기엔 '고향을 팔아먹기만 한다'는 생각이 들

깊이름의 간판을 붙여나가기도 했다. 그러자 부모형제들까지 너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왜 지역의 그런 사람들과 다투며 모든 것 그만두고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가 작가로 글이나 열심히 쓰라고 했다. 팔순이 넘으신 어머니도 매주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고향집으로 오는 아들을 반기운 얼굴로 보다는 불안한 얼굴로 맞이했다.

그때에도 길 위의 스승들이 중심을 잡아 주었다. 싸움이 싫어서, 또 얼굴에 흠을 묻히기 싫어 물러서면 내 웃고 얼굴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장구한 세월 동안 자연과 함께 해온 것들이 공사판이 될지 모른다고 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할 오솔길에 방부목으로 계단을 설치해 오하러 걷기 더 편하게 만들고, 필요하지도 않은 전망대를 설치하고 아무곳이나 쉼터를 만드는 게 걷는

길을 걸으며 만난 스승들

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글로만 고향을 사랑하지 말고 실제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옛길을 살려 고향 사람들 모두 좋아하고, 또 외지인들이 찾아와 걸을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그 길에 이야기를 담아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역시 작가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니냐고 했다.

그 말에 고향 옛길 탐사에 착수했다. 옛말에 삼인행이면 필유야사라고 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걸으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이다. 그 당시 내게 걷는 길 탐사는 인생의 또 다른 학교와도 같은 것이었다. 50년을 걸어왔는데도 산길을 걷는 법, 들길을 걷는 법, 오르막길을 걷는 법, 내리막길을 걷는 법을 그야말로 절름절름부터 다시 배우며 고향의 돌레길을 탐사했다.

제주 올레길의 성공 때문인지 애초 내가 기획하고 탐사해 나가는 길에 이상한 횡행꾼들이 달려들기도 했다. 그들은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며 우리가 개척하고 탐사하는 길 중간중간에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이런에 길을 만드는 자와 공사하는 자들의 또다른 경제성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었다. 책상 밖의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도 길 위에서 처음 배운 셈이었다.

우리가 길을 걷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걸어서 이동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래서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걷는 동안 한 가지 생각을 골똘히 할 수 있어 사유의 폭을 넓게 하고 또 깊게 한다는 것도 하루 종일 걷는 길 위에서 배웠다. 오래 걷는 것이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의 끈을 잡고 그것을 오래 생각하는 사고의 인내력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다는 이 멋진 말도 함께 길을 걷는 사람에게서 배웠다.

그런 과정을 거쳐 강릉 바우길은 인간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길로 세상에 잘 알려진 길이 되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최근 그 길을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과 다시 한번 걸었다. 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과 스승들이 그리워지는 시간이었다.

걸음을 치는 것이 안타까워 한 말. "왕의 지혜롭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아무리 세상에 쉽게 자라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 따뜻하고 열흘 동안 추우면 능히 자랄 물건이 없다. 내가 왕을 만나는 일이 드문 데다가, 내가 물러나면 차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 비록 싸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一日暴之十日寒之]."

☆ 시사상식 / 나이키 커브(Nike Curve) 단기간에 급속하게 침체한 경기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형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급락했던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V자형으로 급속히 회복하지 않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데서 나왔다. 이 현상은 정부의 부양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데다 경제 침체는 기업 파산, 실업률 증가 등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며 회복을 늦추기 때문에 생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슈&인물

'취임 1년' 3선의원 출신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투명성 강화... 금융사로 평가받길”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도 등장하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면 위에서 책임을 다하는 어엿한 금융사로서 금융당국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GA는 보험 설계사로 이뤄진 조직으로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보험을 판매하는 사업자다. 특정 보험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한 회사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 상품을 취급, 비교 판매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은 전속 설계사 시대에서 GA가 보험시장의 큰 축을 담당할 만큼 성장하는 무기가 됐다. 지난해 GA의 손해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30.5%로 다른 채널들 대비 가장 높았다. 보험설계사 10명 중 4명은 GA 소속일 정도로 영향력은 날로 커졌다.

◇ ‘불안전판매·높은 수수료’ 둘러싼 오해 풀어야 하지만 GA 업계는 그간 설계사들의 높은 수수료나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불법 승환계약, 불안전판매 등이 많이 발생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업계 이미지를 바꾸고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소방수’ 역할로 1년 전에 발탁된 인물이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GA회장)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던 김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타고난 설득력으로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지난해 6월 GA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나며 업계와의 소통도 활발히 진행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김 회장. 그는 18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업계를 둘러싼 오해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회장은 GA업권의 현주소를 ‘낮은 위상, 나쁜 평판’이라고 평가했다. GA에 대해 불신이 큰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관련 설명을 하기도 했다. GA 현안과 단기납 종신보험의 문제점, 업(業)의 본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기 쉽다”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보험사 실적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상품 구조가 설계돼 있는데 이를 만든 원수보험사는 제외되고 판매한 GA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에 대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보험대리점협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이제 보험대리점이 당당히 금융사로 위상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해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에는 “설계사는 타 업권과 동일하게 보험상품판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며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위한 투자재원을 만드는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1년 짜리도 아니고 30~40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운영자금을 유지해준 만큼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이 내 목소리에 업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는 “업계에서는 당당하게 바른 방향을 얘기한 것에 대해 많은 호응과 응원을 해 줬다”며 “업의 본질과 설계사들의 직업에 대한 재평가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불법 스카우트 근절해 소비자 신뢰회복 꾀할 것= 특히 김 회장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GA의 불법 승환계약 근절 노력이다. 높은 스카우트비용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가 일시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을 벌이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다. GA협회는 지난해 9월 건전

보험판매 전문화해 신뢰회복 앞장 나이스신평과 신용평가 방법 모색 설계사는 자금중개인...재평가돼야

한 모집질서 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협약을 진행했다.

그는 “취임 직후 전국의 GA 본사를 방문하며 자율협약을 맺기 위한 설득에 나섰다”며 “유망한 설계사를 데려올 때는 짜릿하지만, 반대로 더 큰 회사에 설계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지지않느냐고 했더니 대부분 수긍했다”고 전했다. 실제 소속 보험설계사 1000명 이상 대형 GA 39곳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협약에 참여한 대형 GA는 55곳으로 늘었다.

자율협약 효과에 대해서는 “불법 스카우트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라면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반칙’은 100% 들통나게 돼 있다”며 자신했다.

실제로 대리점협회는 올해 2월 첫 위

반 사례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했다. 협회는 자율협약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 추진·일자리 창출 효과= 그는 “설계사 이직으로 인한 상황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수료를 취하기 위한 상품 간 승환계약도 발생하고 있다”며 “회사가 아닌 상품 간 승환계약까지 막을 수 있도록 자율협약을 GA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보험사 소속의 전속설계사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법제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 회장은 GA 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 판매전문회사제도와 기업신용평가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상품 생산자인 보험사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연결하는, ‘보험 유통’을 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단속 보험대리점과는 달리 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보험사와 직접 사업비, 수수료를 등을 협상할 수도 있다.

그는 “해당 논의가 진전돼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국과 논의하고, 보험 판매전문회사를 주제로 업계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도 올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보험설계사 시장에 신규 인력인 청년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보험 소비자로서도 책임성과 명확성이 분명해지는 만큼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개발하고 있는 GA기업신용평가 방법론을 통해 투자와 인수합병(M&A)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를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GA업권이 이에 대한 이해나 기반이 없어 평가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신규채용, 시스템 고도화, M&A 등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회사를 키워나가야 업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업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정성원 기자 jsw@

이투데이, 밑투데이

☆ 프란티세크 쿠푸카 명인

“위대한 예술은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실재를 순수하고 단순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를 비시각적이고 비촉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체코 미술가. 간판을 그리는 페인팅으로 일하면서 미술을 공부한 그는 일찍이 추상회화를 추구해 ‘색채의 음악적 건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탄생 75주년에 체코에서 대회고전이 열리고 쿠푸카미술관이 설립되었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871~1957.

☆ 고사성어 / 일포십한(一暴十寒)

아무리 잘 자라는 초목이라도 하루 벌을 쬐고 열흘 동안 추운 곳에 놓아두면 자라지 못한다는 말. 맹자(孟子) 고자상(告子上)에 나온다. 맹자가 제선왕(齊宣王)이 타고난 어진 성품과 총명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잠시 희망이 엿보이다가 다시 제자리

국정 실마리 풀 총리의 정치력

국무총리의 정치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다. 헌법에 명기되길 그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단순한 수동적 관료에 머물기엔 총리의 헌법적 권한이 너무 크다. 국회 인준을 요하는 원천적 정부직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력이 없었더라도 총리가 된 후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정 난맥이 심각한 요즘엔 특히 그렇다. 주지하듯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여론은 20%대에 머문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들의 정치 공세는 대통령의 의제마다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회는 원 구성 합의 실패로 반쪽만 열려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그 불똥은 행정각부에 튀고 있다. 정치권의 양극화와 정치충돌의 증폭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대통령, 여당, 야당이 절망스러운 갈등의 늪에 갇혀 있는 만큼 무언가 다른 실마리나 탈출구가 필요하다.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역대 총리를 보면 관료, 법관, 학자 출신이 여럿 있으나 정치인 출신이 가장 많다. 민주화 이후 6공화국만 봐도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이태진, 한명숙, 이완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 굵직한 정치인이 총리직을 수행했다. 그만큼 총리의 정치력을 요했던 시기가 많았다. 물론 이들이 다 정치력을 잘 행사했던 건 아니다. 정치 경력이 아닌 다른 자질이나 장점으로 총리직에 올랐으나 재임 시 정치력을 인정받았던 이들도 있다. 강영훈, 이회창, 고건 등의 예가 있다. 그러므로 시국의 정치적 해법을 위해 무조건 정치인 출신이 총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고, 현한덕수 총리의 정치력 부재를 정치 경력 없음의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총리가 국정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정치 정상화에 이바지하려면 몇몇 조건이 필요하다. 모두가 난제다. 첫째, 대통령의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총리의 정치력 발휘를 용인할 뿐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주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속 좁게 자기만 내세우는 우

임성호의 정치원론

경희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둔한 대통령이라면 총리의 정치적 역할이 자기를 가린다고 생각하고 권력 누수라고 경계할 것이다. 반면, 열린 마음의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총리를 진정한 동료로 여기며 국정 돌파를 위해 서로라면 자기 대신에 총리가 나서 정치적 성과를 내는 걸 반갑게 받아들일 것이다.

둘째, 야당의 유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총리를 관료로만 보지 말고 정치적 거래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고 국정 난맥을 초래하면서 기뻐할지 모른다. 사법 리스크에 빠진 야당 최고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국정이 혼란스러워지길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거대 야당이 반대편을 너무 몰아대고 일방적으로 독주할 때 유권자는 국정 책임을 거대야당으로 돌린다. 그러면 2년도

안 남은 지방선거와 3년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에서 민심의 추(鍾)는 다시 반대쪽으로 갈 수 있다. 총리를 매개로 하는 적당한 정치적 타협이 대통령과의 직접 거래보다 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셋째, 총리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로 안주하면 편하겠지만 세인의 존경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정치적 역할로 국정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온갖 고초가 따를 것이다. 양극적 대결이 정치권을 살벌하게 쪼개놓은 상황이므로 총리가 아무리 정치력을 발휘하려 해도 비야냥이나 육만 먹기 쉽다. 별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도 총리로서의 소명을 잊지 않는다면 정치 혼란으로 인한 국정 위기를 좌시할 수는 없다. 대통령, 여당, 야당을 상대로 조정·협상·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만약 그럴 용기나 능력이 없다면 물러나는 편이 낫다. 정치력을 갖춘 총리감이 이 넓은 사회에 없겠는가.

한 컷



54세 회현시민아파트의 '꿈'

1970년 입주한 국내 1세대 토지임대부주택인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전망 공원과 대형 주차장, 북카페 등을 포함한 다목적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2층은 남산 관광의 고질적 문제로 제시됐던 대형 버스(지상)와 승용차(지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상 3층은 북카페와 키즈카페,

휴게 라운지 등을 갖춘 남산라운지, 지상 4층에는 남산공원 부지의 지형을 살려 전망 공원과 테라스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13일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14일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를 시작 2026년에는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조현호 기자 hyunh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10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KDI가 어제 발간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한다. 보고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인 30~40%로 늘려야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사회화하는 '묻지마' 투자 폐해를 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이 경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2021~2023년 추진된 300여 개 PF 사업장에 대한 재무구조 분석을 토대로 작성했다.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 원(3.2%)만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6.8%인 3631억 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체계가 잡힌 일반 선진국이라면 97% 빚더미 부동산 사업은 생각할 수도 없다. 미국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33%다. 사업장별 특성상 기준에 미달할 수는 있지만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1.5배 더 쌓아 안전망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도 30~40% 수준의 자기자본투입을 요구한다.

자기 돈 없이 빈손으로 밀어붙이는 국내 부동산PF 사업은 한탕주의가 판칠 수밖에 없다. 영세 시행사는 자본이 태부족이니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는 PF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문제가 없는 '저자본·고보증' 구조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냉각

되면 필연적으로 큰 사고로 이어진다. 수많은 건설사가 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다 줄줄이 무너진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16위로 1군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경영 위기에 놓인 것도 시장 구조와 무관치 않다.

개별 사업장 부실은 건설·금융 부문을 덮치는 큰불로 번지기 일쑤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뇌관이 된 지 오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202조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빚어졌던 2009~2010년의 두 배에 달한다. 과거 교훈에서 아무것도 못 배운 시장 참여자들이 탐욕의 거품을 키웠다.

연체율은 근래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3.55%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0.85%포인트(p)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4.30%p 오른 11.2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권은 3.84%p 오른 17.57%였다.

당장 급한 것은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과 부동산 연착륙이다. 정부의 대책 시행 후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 동요를 최소화하려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이 없다면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KDI 권고대로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자산 버블을 키우고 각종 사고를 낳는 '한탕 구조'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일이다.

정치에 휘둘리는 '금투세 청원'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의 피드백과 히딩크를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 상승."

최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코멘트한 내용이다. 해당 리포트 내용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금융투자 전문가가 정부 추진 사업 전망을 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을 불러왔고, 해당 리포트 내용이 수정되면서 일단락됐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시장이 오매불망 중요시하는 고용지표보다는 '히딩크 관상 분석'을 솔직히 더 신뢰한다"는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관상'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역시 논란이 되자 해당 리포트는 '지표는 가려서 받아들이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변경됐다. 관상 관련 내용도 삭제됐다.

진심이었던, 가벼운 농담이었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는 리포트에서 '관상'이 언급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현안에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석유 시추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기를 물 떠놓고 비는 듯한 일각의 반응을 보고 있자니 일면 '관상'을 보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비판으로 해석될 법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석유 시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면서부터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물론이고, '가짜 약 파는 약장수'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나왔다.

유전 가능성을 분석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고 문은 "석유 매장 가능성은 국가 경사인데 한국처럼 논쟁이 뜨거울 경우는 처음"이라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트북 너머

박민규
자본시장부 기자



물론, '국가 경사'이기 이전에 다방면의, 철저한 분석과 비판적인 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과연 이러한 비판들이 객관적인가'라는 의문이 짙다.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기에 바쁜 양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다 고춧가루를 뿌린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반응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마찬가지다. 5월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된 금투세 폐지 국회 청원에는 총 6만9184명이 동의의 뜻을 표했다.

기준선인 5만 명을 넘어서면서 향후 국회에서 논의 되겠지만, 투자자 여론보다는 '여당 대 야당' 구도가 형성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힘을 잃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 문제에서는 좌우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이나 입장이 틀렸다는 믿음이 깔린 공론은 오히려 '관상'보다 주술적이다. '정치가 만사'라지만, 모든 현안과 메시지에 정치 논리가 대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옳은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고, 옳지 않은 부분은 배제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가는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pmk8989@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천만대의 무풍이 만들어 온 건

직바람에 찌푸릴 일 없는 여름 [무풍 모드]

AI로 전기요금 걱정 덜어주는 여름 [AI 절약 모드]

방방곡곡 빠르게 시원해지는 여름 [하이패스 서큐 냉방]

천만의 선택 BESPOKE AI 무풍에어컨



무풍에어컨 천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벌

뉴질랜드 투어, 신라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 총 1,000분께 경품을 드립니다

(24년 4월1일~6월30일 24년 무풍에어컨 갤러리 신규 구매 고객 대상,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 참고)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 *AI 절약 모드는 SmartThings에서만 지원하며, SmartThings는 지원 환경 및 사용 방법에 일부 제한이 있음 *AI 절약 모드로 누진 단계에 따른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 환경에 따라 스마트미터기 별도 구매가 필요 * AI 절약 모드 사용 시 설정 온도가 최대 2도 상승할 수 있음 * 무풍에어컨 천만대 판매 관련, 2016년 1월~2024년 3월 일체의 온,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무풍에어컨(가정용, 상업용) 스탠드형, 벽걸이형, 창문형, 시스템 에어컨 누적판매량 기준

세상에 없던
AI 라이프.